

2005年度
國政監査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國會事務處

被監査機關 文化觀光部

日 時 2005年10月11日(火)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14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미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국정감사를 종합해서 확인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대해 오늘 실시하는 확인감사는 그동안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함과 아울러 시정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로써 금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국정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확인감사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이미 보고를 청취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의 현황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들어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자료요구 하십시오.

○손봉숙 위원 손봉숙입니다.

1985년 특별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무기관과 옥외광고사업자 간의 계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85년부터 현재까지 특별법인 지원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의 대행사 선정절차에 관한 사본 일체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현재 특별법에 의한 전국 옥외광고물

의 소유자와 사업자의 명단 그리고 각 소유자가 옥외광고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법적근거 및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넷째, 현재 총리실에서 추진 중인 옥외광고사업 규제 개선방안과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간판문화 개선사업의 업무현황과 현재 추진실적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경 예, 안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성명서를 제가 배포해 드렸고 이것이 각 위원님실로도 다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체육단체 구조개편에 관련된 법안을 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한체육회 노조의 반응이 성명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체크한 부분을 보면 의원이 입법발의한 내용을 KOC 분리 책동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안전기획부를 자기들끼리 회사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봤는데 정부의 산하단체인 대한체육회를 노조 성명서에서 회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어처구니없고요. 그다음 뒷면에 보면 ‘개인의 영욕을 추구코자 힘을 앞세운 비열한 여론몰이로 체육계의 분열을 조장하며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먼 안민석 의원’ 아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가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회를 통합시켜서 통합체육회장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뭐 그런 소문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가 이 성명서를 배포해 드린 것은 저는 상당히 위협감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에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적인, 집단적인 위협을 느낀다면 의원이 이해당사자의 협박과 위협이 무서워서 어떻게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공동발의를 하였던 70여 분의 의원들에 대한 협박도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협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감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국회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성명서를 읽으면서 참 제가 분노를 다 느끼는데요. 여기에 보면 ‘KOC를 팔아넘기면서까지 두 개의 밥그릇을 챙기고자 하는 것은 하룻밤 영달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모든 체육위원회 이름으로 엄중 경고한다’ 그리고 또한 ‘개인의 영욕을 추구코자 힘을 앞세운 비열한 여론몰이로 체육계의 분열을 조장하며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먼 안민석 의원’, 제가 17대 국회 들어와서 안민석 위원이 개인의 영욕을 추구한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위원이 체육계를 통합하고 올바로 체육계가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애쓰는, 헌신적인 노력은 들었지만 사사로운 이익에 눈 먼 것은 여야 위원님들이 전혀 본 적도 들은 적도 느낀 적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야말로 우리 문화관광부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 건입니까?

○**정청래 위원** 예.

○**위원장 이미경**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청래 위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는 것은 의원 고유의 권리이고 또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치 않으면 어차피 이 법에 대해서 토론과 공청회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설령 옳다 할지라도 표현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검함의 가면, 밀약설, 체육계의 이완용 이런 표현은, 대한체육회 노동조합도 공조적 아닙니까?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정말 낮 뜨거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을 이렇게 인식공격하는 것은 대한체육회 회장님이나 우리 문광부 장관님께서 시정조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서 경고 내지는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안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토론하면 됩니다.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국민 마음을 더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지한 노력과 토론을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성명서를 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 성명서를 위원장도 받아보았습니다. 산하단체의 노동조합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정책을 놓고 하는 입법활동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성명서를 냈다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한체육회 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일단 조사하시고 또 경고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면 노동조합하고 당사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체육회 회장까지 거론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 진상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아무튼 대한체육회 노조가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도와 도를 지나친 표현이라든지 정도와 도를 지나치는 노동운동은 저희들도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문화관광부장관님,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번 국감 때 지적했는데 상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더 자세히 보니까 전통사찰 보전법에 의하면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할 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찬 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부에 허가신청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부분이 경내지인지는 우리 중무실 관계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용화사의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용화사가 통영시에 대여하거나 양도하기 위해서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허가하셨어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찬 이 공사와 관련해서 일련의 필요한 절차가 아직 저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특히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안 받았다면 통영시가 전통사찰보전법이 적용되는 용화사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허가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를 안 했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통영시가 전통사찰보전법을 위반했고 또 조계종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데 문화관광부장관이 방조한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계종에서는 10월 14일까지 통영시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용화사 부지 원상복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4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대상이 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찬 대상지가 될 경우에는 저희에게 허가를 받기 전에 조계종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절차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 협의가 원만히 되도록 저희가 계속 조정 내지 지도를 해 왔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만약 불법이라면 원상으로 복구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찬 만약에 불법이라면...

○이경숙 위원 그리고 케이블카 공사는 10월 말까지 완성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이 50%가 안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것도 국고로 환수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찬 무단 점유 문제하고 조계종과 통영시와의 협의 문제는 저희가 계속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 내지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원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 원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덮어두는 것이 원만한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찬 우리에게 허가를 받기 전에 관계되는 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 조계종에서 원하는 부분, 환경이라든지 이런 이해당사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이경숙 위원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통영시 문제뿐만 아니라 남해안관광벨트 전반적으로 볼 때 중복투자라든가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또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재조사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찬 저희가 2003년에 1차적으로 중간평가를 해서 사업규모하고 예산규모는 작년에 조정해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문단하고 평가단을 상시 운영하는 체제로 하고 있고요. 필요 시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했지만 지금 굉장히 난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조사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남해안관광벨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광역권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내년 예산에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평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남해안 지역도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충분히 해서…… 통영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그 자연을 살리면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상품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최근에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의 위·변조 우려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중에 상당수가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만약 이 위조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데 현재 위조 상품권 신고건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직 신고건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가증권 위조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즉시 고발해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경품용 상품권 제작회사가 현재 9개 사이고 규모가 800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발행사가 규정을 어기고 지정된 인쇄소에서 아닌 다른 인쇄소에서 불법적으로 추가 제작해서 시장에 유통시킬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발행사가 직접 도안과 특수문자, 홀로그램, 바코드까지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조인지 아닌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임산업개발원에서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신고가 없으면 상품권 발행사가 불법 발행한 상품권이 발견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유통사가 부도가 나거나 퇴출될 경우에는 상품권 유통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상품권이 있으면 신분 확인 없이도 쉽게 돈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 소액 상품권을 한 7000개 되는 가맹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게임용 상품권 발행회사가 불법 상품권 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제보되었습니

다. 제보된 내용을 보면 합법적으로 200만 장의 상품권을 지정된 인쇄소에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품권 발행회사가 자체 제작된 필름을 가지고 지정되지 않은 불법 인쇄소에서 100만 장을 추가 제작하겠다고 인쇄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짜리 상품권 100만 장이라고 하면 50억 원인데 이것이 진짜하고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것이 유통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공개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것이 불법으로 유통되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불법도청이 아닙니다.

먼저 녹음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음 내용 재생)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무슨 내용이나 하면 200만 장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100만 장은 불법으로 하는 것인데 인쇄만 해 주면 홀로그램, 바코드 이런 것을 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몰래몰래 하는 것이고 보안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당히 길게 녹음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필름을 주고 찍는다, 정상적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금액에서 마진을 떼어서 준다, 계속 한 군데에서 찍지를 못한다, 이것은 인쇄소를 한 군데만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벽에 일을 하고 기술자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을 시켜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인데요, 제가 어떻게 유통될 것인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불법상품권 유통 흐름도인데요, 상품권 지정기관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입니다. 상품권 발행사가 아홉 군데가 있지요.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인쇄소가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 발행사가 9개 있죠? 여기서 필름을 다른 데다 주면 인쇄를 할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전문인쇄소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에서 또 불법유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게임장과 가맹점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발행사하고 상품권 전문 인쇄소는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100만 장을 따로 했

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이게 불법으로 돌아가는데 진짜하고 너무 구분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제3자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데서 상품권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품권이 아닌 것이 위조될 수 있는 게 위조상품권 제작, 불법 상품권 제작 그리고 이런 발행사와 전문인쇄소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불법행위는 적발되면 당연히 발행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조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위조방지시스템을 강화하고 한국조폐공사의 특수용지, 워터마크지라고 합시다라는 이것을 사용해서 인쇄할 계획입니다.

○이경숙 위원 방지하는 홀로그램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임기 내에 감시 칩을 장착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전국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모든 게임기의 운용실태 또 상품권 유통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벌써 육천 곳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가 축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내에 게임상품권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장관님, 지금 이경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조사를 하셔서 고발할 것은 바로 고발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부 내에서 불법유통 대책을 세우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광부장관님께,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몇 가지 확인·보완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한강 개발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장관님께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표시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오 위원 그리고 지금 문광부에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관광레저개발사업, 경주역사문화도시, 동해안광역관광 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오 위원 지난 99년 국민의 정부 때 문광부에서 한강개발 5개년계획을 세운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김대중 정부하의 관광 5개년계획 속에 한강 문제가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뒤에 있는 간부들과 의논함)

○이재오 위원 그때 세운 안을 보면 한강의 관광자원화라는 항 속에 한강의 역사를 복원하고 한강의 보행 다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부의 안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관광진흥법 속에 포함되니까?

○이재오 위원 그렇습니다. 또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오 위원 이것과 맥을 같이 해서 한강개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장관께서 이것이 서울시와 관련돼 있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서울시와 협의할 사안입니다.

○이재오 위원 건교부와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하려면 한강개발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때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몇 가지 사업은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도 그때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역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건설교통부나 우리 문화관광부가 같이 협의대상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위원** 그렇게 하려면 한강개발특별법이 라든지 이러한 법적 체제가 있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선 서울시와 기초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안을 6월에 제출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오 위원** 이것을 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서 두 가지를 우선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인오락실을, 이것을 단순히 오락행위가 아닌 사행행위로 규정하게 되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오 위원** 그래서 사행행위로 규정해 버리면 단속을 경찰청에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이재오 위원** 그런 점이 하나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등급 분류된 게임물을 불법으로 개·변조할 경우에 이런 등급분류를 취소하거나 또 재심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28조에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유통되는 것을 적발할 경우에는 동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 어떠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총리실 주관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관련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심각성을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대도시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중소도시에도 이게 퍼져 나가기 시작해서 전 국민이 완전히 게임에 중독되고 사행산업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그다음에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원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문화원을 통합해서 해외문화원으로 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오 위원** 제가 많이는 안 다녀 봤습니다마는 제가 다녀 본 경험으로 봐서 해외문화원하고 관광공사에서, 관광공사에 해외 지사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오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는데 해외 지사가 지금 몇 군데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스물세 군데 있습니다.

○**이재오 위원** 몇 명이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8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위원** 전체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이재오 위원** 더 되는데. 관광공사 해외 지사가 23개에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정규직원이 78명 정도 될 겁니다.

○**이재오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할 사항인데요, 정부의 여러 기관이 해외에 나가있는 것은 좋지요. 많은 기관이, 많은 인원이 나가 있으면 좋지만 문제는 일을 효율화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오 위원** 중복된 예산과 인력은 국가적 낭비이니까 해외문화원하고 해외관광지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가령 북경의 코리아센터 건물을 저희가 거의 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코리아센터의 건물을 매입하면 그곳에 우리 해외문화원, 관광공사, KOTRA 이러한 기관이 한군데 모여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센터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저희가 내년 2월에 런던에도 문화원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런던에도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런던에 나가 있는 관광공사 지사, 문화콘텐츠진흥원 지사, KOTRA, 문화원이 다 같이 입주하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위원** 한 건물에 여러 기관이 함께 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휘감독 체제가 일원화되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통폐합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오 위원 그걸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해외 공관에 나가 있는 정부 공공기관의 단체들은 거기의 재외 공관장의 지휘를 통합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오 위원 다음에 문화관광부 본부와 직속기관의 기능직 공무원이 총 500여 명 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재오 위원 기능직 공무원들의 진급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늦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비교해 보면 대개 6급까지는 봉급이 거의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오 위원 그런데 5급으로 올라가면 한 급수당 대개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만 원, 40만 원 차이도 좋은데 기능직 공무원은 5급 이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진급이 거의 안 된다는 것입니다. 6급까지는 일반직 공무원하고 봉급이 똑같아요.

그런데 대비표를 보면 5급부터는 봉급도 차이가 날뿐더러 숫제 진급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문화관광부 산하 500여 명의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본인들의 인권이나 처우를 생각해서라도,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공무원화를 못 할 바에는 진급이라도 좀 제대로 시켜 주고 진급기간도 일반직 공무원과 차이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기능직에 대한 사항은 우리 부뿐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기능직의 처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이게 10급에서 9급이 되려면 6년 걸리잖아요. 9급에서 8급이 되려면 7년이 걸리고 8급에서 7급이 되려면 8년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가 안정된 사회이고 또 요

즘 실업자가 많고 직장 구하기 어려우니까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이직률이 거의 없지만, 똑같은 대졸자로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6, 7년 근무하면 급수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오 위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물론 이런 문제가 정부 전체의 차원이기는 하지만 우선 가능한 해당부서만이라도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연구하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체육회장님!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안민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9월 27일 한나라당의 이재오 위원님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위원님과 함께 공동발의를 해서 일흔여덟 분의 서명을 받아 체육단체 구조개편안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모 신문에 보니까 10일 현재 전국 대학의 체육학과 교수 925명 중 516명이 체육단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체육교수 서명운동에 동참했는데 밑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는 현실화되고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KOC가 분리되면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즉 직원들의 인원감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이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우선 안민석 위원님께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우리 노조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쓴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직원들의 신변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되고 있지 아니하고, 지금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또 다른 오해는 KOC가 분리되면 엘리트체육이 다 죽는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KOC를 독립시킴으로써 엘리트체육, 국제체육의 위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KOC가 분리되면 엘리트체육이 정말 다 죽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모든 정책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분리한다고 죽고 분리 안 한다고 살고 또 그 반대로 한다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직원들과 잘 대화하시고 설득하셔서 이런 오해가 불식되도록 그리고 이러한 구조개편 방안이 엘리트체육도 살고 생활체육도 사는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임을 잘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지금 국회에 체육계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안이 제출돼 있고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님 외 많은 의원님들이 분리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13일에 대한체육회 이사회와 KOC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안인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또 그때 가서 저희들의 의견도 입법과정에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체육단체 국감을 할 때 대한축구협회의 재정 투명성 문제라든지 많은 의혹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한축구협회에서는 11월 1일부로 법인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애를 쓰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2004년에 실행했던 한국축구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축구협회 법인화를 2010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하신 결과 축구협회를 주먹구구식의 운영으로부터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5년을 앞당겨서 법인화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이후에 축구협회로부터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받았는데 참으로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두 분의 회계사, 한 분의 변호사와 그 자료들을 죽 검토를 했고 그 검토에 대한 문제점을 이광철 위원님과 함께 2차 보고서를 지금 다시 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아쉬운 점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제기했던 축구협회와 FC네트웍와의 유착설, 이 부분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

다. 두 번째, 나이키와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물품과 현금을 준 나이키는 500억 원을 주었다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400억밖에 받지 않았다고 그러합니다. 100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증발됐는지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나이키와 대한축구협회가 맺었던 계약서를 이번에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것을 왜 숨겨야만 되는지 의혹이 증폭될 따름입니다.

세 번째로 대한체육협회가 그동안 국제경기 A매치를 거래했다고 하는 영국의 축구에이전트 KAM이라는 회사와의 거래관계입니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입금했던 영수증이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친선경기 매치 수수료 중 97만 불이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개인 간의 상거래도 아니고 이런 공신력 있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거래를 하면서 100만 불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물론 영수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수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00만 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는지 참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축구협회라는 같은 조직 내에서 현대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비현대 출신 직원들과의 임금차이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납니다. 가령 국장 같은 경우 현대에서 파견된 직원과 기존의 축구협회 직원 사이에 4600만 원이나 연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현대축구협회라고 비난을 받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왜 그랬는지, 활동비를 왜 현대 출신 직원에게만 지급했는지에 대해 일절 해명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외경기 수입 및 국제대회 파견비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이번에 다시 서류를 받으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협회 법인화가 문제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 문제를 인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7일인 국감 당일 MBC PD수첩에 축구협회 관련 프로그램이 나간 다음날인 28일부터 1주일 동안 인터넷에서 다시보기 1순위에 오를 정도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고 도대체 축구협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인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당히 물어주려고 해도 더 이상 물어질 수 없는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밝힐 건 밝히고 가야 된다, 틀 건 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고와 기금 또 월드컵잉여금 230억 원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7일 국정감사에서 제안을 했지만 축구협회의 의혹을 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한 치의 의혹이 없이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아젠더를 장관님께 제안할까 합니다.

남북한 태권도가 틀린 것은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안민석 위원 그리고 2000년 6·15 정상회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 부분을 통합하자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02년 U대회 때 왔던 장웅 북한 IOC위원과 당시의 김운용 한국 IOC위원 간에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원칙을 이룬 것을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안민석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문화·체육 교류에 있어서 항상 남한에서 하자고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북의 사정 때문에 잘 추진되지 않았는데 유독 한 가지가 북에서는 하자고 그러는데 남쪽의 이유 때문에 진전되지 못하는 교류, 이 교류가 바로 태권도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권도의 통합 문제는 단순히 남북의 태권도를 기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화된 민족정신을 통합하는 그리고 한반도 화해와 평화시대의 상징적인 그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히 WTF라든지 ITF 이쪽에만 맡겨둘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인 점에서 상당한 어떤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조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양 기구에 대해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장관회담에서도 남북한 태권도 통합문제는 아젠더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서 또 우리 차관님이 남북장관급회담에 항상 정규 멤버로 참가하시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안민석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5월 대한체육회에서 문화관광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칭할 것에 대해서 체육계 주요 인사들이 서명을 해서 건의를 받으셨고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7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부 내에서 지금 공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 정병국 위원입니다.

최근 금강산관광, 백두산관광 그리고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북측의 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9월 1일 북측은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과 현대아산이 갈등을 빚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일방적으로 금강산 방문객수를 600명으로 제한을 했고요.

그런데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지난 2005년 6월 30일 관광공사는 현대아산과 백두산관광에 대한 공동 시행 합의서를 작성을 했지요? 그리고 7월

14일에는 백두산 시범관광에 대해 관광공사와 현대아산 그리고 북측 아·태위원회 간에 합의서도 체결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3일은 아·태위원회에서 현대아산을 배제한 상태 속에서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전통문을 통해서 백두산 관광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전통이 내려왔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북측에서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현대아산을 배제한 상태 속에서 직접적으로 한국관광공사하고 접촉한 사실은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었죠?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 전문 내용을 보셨겠습니까라는 배제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병국 위원 배제한 일은 없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모든 금강산관광이라든가 백두산관광이라든가 관계되는 부분들을 현대아산을 통해서 전통이 내려왔었는데 관광공사가 직접 받으신 것은 처음으로 받으신 거죠?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것도 사실상 아산을 거쳐서 왔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저희가 독자 팩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아산을……

○정병국 위원 그런데 받는 수신은 관광공사로 내려온 거죠?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리고 2000년 8월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현대아산과 북측이 맺은 합의서가 있고 또 같은 시기에 ‘주요 명승지 종합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 의하면 개성관광에 대한 독점권이 현대아산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말 일방적으로 롯데관광에 개성관광을 제안함으로써 그동안 현대아산과 협의를 보았던 모든 사항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합니다. 장관님, 이 내용 아시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현대아산은 이러한 합의서를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 3월 18일에 정부로부터 개성관광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은 내용도 알고 있죠? 개성관광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게 되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

발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병국 위원 사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정병국 위원 따라서 우리 국내법상 현대아산의 동의 없이는 다른 기업에게 개성관광 사업권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금강산관광은 많은 국내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퍼주기 논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룹이 해체 위기까지 가면서 또 사업 자체가 남북 경협 상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부의 협조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탱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이이익보다는 민족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고 따라서 고 정몽헌 회장이 사망하기까지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겪어가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상당히 투명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금강산관광이라든가 남북 간의 경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됐던 것이 아니라 특정인과 또는 북측 인사의 어떤 사적 라인을 통해서나 이게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형상을 가져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게 여야 할 것 없이 또는 국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해 왔던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런 과정 속에서의 사적 라인이 정리가 되고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북측의,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판지결기, 장난질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측면에서는 북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롯데관광 측에다가 했을 때 롯데관광이 처음에는 협의를 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국민적 여론도 비등하고 하다 보니까 도의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용당할 우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관광공사, 정부 일을 대행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입장이 저는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

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루어졌을 때 본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또 한국관광공사 감사 중에 또는 상임위에서도 문광부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지금 정동채 장관님은 아니시지만 그럴 때마다 남북경협 문제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지난 9월 초에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을 했던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북측과 금강산관광사업이 갈등을 빚을 때 금강산관광은 정부의 희생과 지원이 있었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라며 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경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깨는 듯한 발언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관례대로 현대아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입장은 뭐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저희는 공공기관이 할 역할이 따로 있고……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따로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남북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적대감 해소를 완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상황이 좋아지면서 교류의 폭을 넓혀가는 기반을……

○정병국 위원 그런 목표나 그 원칙에는 다 동의의 해요. 그것의 접근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광공사가 현대아산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금강산관광사업을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투자만 했을 뿐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관광공사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남북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이 바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지금 또 관광공사에서 10월 22일부터 25일 평양방문, 묘향산과 관련해서 방문하는 이 공문을 우리 위원회에다 보내왔는데 보내 오셨죠?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정병국 위원 이것이 어떤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내오신 거예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평양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시범관광단을 모집한다, 그래서 국회에다가는 위원회로 문화관광위원들에게만 보낸 거죠?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정병국 위원 이게 어떤 취지로 보내신 거죠?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것은 저희가 평양 시내의 관광환경 개선작업을 지원하면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평양관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이 평양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은 관광공사가 어떻게 개입을 하게 됐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것은 북측의 민화협이……

○정병국 위원 관광공사에 직접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를 통해 가지고……

○정병국 위원 거기서 관광공사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정병국 위원 공문으로 왔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지금까지 구두로 전달이 되어 가면서……

○정병국 위원 공사가 단순한 구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 이후에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정병국 위원 그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게 지금 북측에서 직접 받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겨레하나되기본부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 북측에서 요청한, 관광공사가 참여를 해 달라고 하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거래하나를 통해서 제안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50명 시범관광단을 모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것은 관광공사의 결정입니까, 북측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것은 저희가 환경 개선 물자를 제공하게 되면서 그 물자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도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저희가……

○**정병국 위원** 관광공사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정병국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과정 속에서 남북경협이 상징이라고 하는 금강산 관광사업 또 거기서 확대가 되어 가지고 개성관광사업도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백두산 관광사업을 비롯해서 평양관광사업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투명하게 되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북측에서 보는 이득이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북쪽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간의 어떤 계약관계를 전부 다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뚜렷한 어떤 원칙을 갖지 않게 되면 또 다시 휘둘러 가지고 또 다른 의혹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참여했던 기업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본 다른 어떤 일반 기업들이 누가 참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약간의 정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밟고 넘어가야 남북 간의 경협도 원활하게 되고, 지금 남북 간 경협 10년 이상을 유지했던 기업이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차제에 문화관광부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원칙을 정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노력해 왔던 기업들의 합의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평양 환경개선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문은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움직임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간기업의 활동하고 상충이 나지 않는 그런 활동이다 하는 것을 첨언을 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원호 위원** 윤원호입니다.

제가 작년에 게임을 했는데 올해는 게임에 손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그제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오늘 또 우리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께서 자료화면으로 지적한 그 일본에서 출시한 ‘현대 대전략 2005 게임’의 내용을 보고 너무 좀 심하다 싶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갑자기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제목이 ‘자위대는 독도와 제주도를 점령하라, 자위대는 북한정권을 섬멸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11월 18일 발매예정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영등위에서 1996년 2월 5일 연소자 이용가로 연소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급판정된 ‘현대대전략EX’ 후속 게임입니다.

시나리오 1편에서 6편까지는 독도와 제주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무력충돌을 그리고 있으며 미션으로 한국에 의해 불법 강탈당한 ‘다케시마를 사수하라’, ‘제주도 제압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자위대가 출병하는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의 장보고함을 격침시키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쿡고급 이지스함입니다.

그다음 대마도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입니다. 왼쪽 끝에 있는 것이 한국군입니다.

시나리오 7편에서 11편은 북한과 전쟁을 통해

북한 정권을 교체시키는 내용이고요.

한국 시판 논란으로 게임업체가 시끄럽습니다. 영등위원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죄송합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996년에요?

○윤원호 위원 예.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희 영등위가 1999년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연윤리위원회 시절에 등급판정을 받았나 봅니다.

○윤원호 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영등위이고 그 이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윤원호 위원 심의 통과가 안 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출시되는 것도 저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외교통상 부하고 협의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이런 게임을 막기 위한 대책이 없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부가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협회 또 시민단체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데 2003년판도 심의가 안 되었지만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등위 심의와 무관하게 게임을 판매하고 있는 오누카 홈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오누카의 게임물 판매코너입니다.

3, 4번은 오누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임물들입니다. 모두 심의 미필 게임들입니다. 현대대전략뿐만 아니라 이 홈페이지에서 팔리고 있는 게임의 경우 ‘노부나가 야망 천하 천세’, ‘악투리스’, ‘안제리 크에트워르’ 이름도 지칭하기 어려운 이런 게임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 역시 현대대전략 2003년판입니다. 2003년판 비디오입니다.

그다음 현대대전략 2003년판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대전략 2003년판을 공동구매하겠다

는 한국의 대전략 게임매니아 카페 대표들의 리플입니다.

오누카에 공동구매를 요청한 현대대전략 게임매니아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의 인사말을 보면 ‘저희 오누카는 일본에서 판매 또는 거래되는 제품을 일본 현지 가격으로 한국에서 구입 가능하게 하자는 창업이념으로 97년 10월 출발하였습니다’라며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대표자 이름이 박우근이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사무실을 두고 등록번호가 622061604355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사관을 통해서 지금 알아봤는데 연락이 잘 안 닿는다고 합니다. 이 휴대폰을 확인하니 일본 사람이 받고 자기하고는 무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현대 대전략 시리즈의 경우 96년 EX판 이후에 그 후속은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못 받았지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버젓이 팔리고 있거든요. 또 인사말도 보면 ‘일본에서 판매 또는 거래되는 제품을 일본 현지 가격으로 한국에서 구입 가능하게 하자는 창업이념으로 97년 출발하였습니다’라며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의도 받지 않은 게임물이 팔리고 있습니다. 법을 보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할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트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게임물을 판매하고 있지만 일본 오사카에 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업체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고 아마 영등위에서는 말씀하시겠지요. 영등위원장님,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희가 심의 미필한 불법 유통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안당국에다가 제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의 끝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해서……

○윤원호 위원 위원장님, 9일 연합에 이것이 떴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대책을 세우셨나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지금 저희 상설단속

반을 보내서 체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게 되는 정보는 모두 다 경찰에 알려져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등급 미필 게임물 그리고 관련 사이트들은 저희들이 검·경 합동단속반에 의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서적, 용품 등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통부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영등위원장님 힘으로 아마 불가하리라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여기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단속하도록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통부와 협조하고 등급 미필 게임물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하고 경찰과 협력해서……

○윤원호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박우근이라는 이 사람을 조회해서 한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알아보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장관님, 저번에 제가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계획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관광협회 사람들과 한 세 시간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저번에 2004년 580만 명 관광객이 오고 2008년까지 관광객이 1000만 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이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 목표를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럴 때는 특급호텔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현재 1000만 명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1000만 명 관광객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특급호텔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용자는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피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마

당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가세 영세율의 문제가 여전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 저번에 감사하는 날 제가 기모노 입은 일본 여자 그리고 일본판 우산 등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7억이나 용자해 주는 관광진흥기금을 정말 제대로…… 활용을 어디까지 하는지 그리고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그 우수작품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에서 판매까지 한번 관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문화관광부와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장관님, 문광부에서 지정한 77개 단체에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 위원 이들 위약금이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내려진 위약금 이것을 그들이 자율적으로 좀 활용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중국관광객이 와서 출국하지 않았을 때 위약금으로 받은 20만 원이 지금 5억 정도 적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광국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러면 문광부에서 이 돈을 활용할 것이 아니고 관광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관광국장입니다.

위약금은 불법체류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을 때 내는 적립금인데요, 그 용도에 대해서 협회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 같이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데 관광협회에서 대단히 불만이 많거든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위원장님, 20초만 더 쓰겠습니다. 장관님, 저번에 방송광고정책이 문화관광부 소

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부조직법 제35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률끼리 충돌할 시에는 헌법, 특별법, 후 제정법, 일반법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부조직법 제35조에 문화관광부가 광고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제35조는 먼저 제정된 법이고요, 후 제정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송법 제92조제2항에도 방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문화관광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은 방송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디는 못하고 어디는 손 떼라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원호 위원 제가 법제처에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정부조직법보다 방송법이 좁은 범위를 규정한 특별법이고 나중에 제정된 후 제정법으로 방송법이 정부조직법보다 우선 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송프로그램과 규제에 관한 것은 당연히 방송위원회가 하고요, 국가의 전반적인 방송정책은 문화관광부 소관업무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원호 위원 서면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꾸 질의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확인감사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조금씩은 시간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분이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환 위원 먼저 문광부장관님, 지금 동네에 가면 배드민턴, 족구 등 생활체육시설이 동네 공원에 조금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엄격하게 도시계획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생활체육을 돕고 싶어도 아주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건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가지고 소규모 간이체육시설들을 신축성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충환 위원 지역축제가 관광콘텐츠로서 굉장

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역시 언론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 마치 지방자치단체들이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사례로 계속 이것을 거론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에 23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 자치단체가 한 개씩만 해도 이것이 234개가 되고 이것을 보도를 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가끔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역시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축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조사에 의하면 전국 234개 단체에서 축제가 731개입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 500개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김충환 위원 잘 이끌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충환 위원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간판입니다. 제가 오늘도 오면서 간판이 많이 붙어 있어서 보았더니 전부 한글 간판입니다. 제가 외국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를 생각할 때, 뭔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제가 진지하게 부탁드리는 것인데 간판을 한글과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도록 간판을 담당하는 행자부장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그맣게라도 레스토랑이면 레스토랑이다, 체육관이면 체육관이다 이런 것이 붙어 있어야지 생판 한글로만 써 놓으니까 관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간판문화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찬숙 위원님도 좋은 보고서를 내 주셨는데 공간문화 전체의 개념 속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은 관광 진흥지역이나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일부 합니까마는 그런 병기하는 문제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김충환 위원 하여튼 한국사람들이 외국어를 잘 못 하는 가운데 전부 한글 간판만 쓰기 때문에 국어 문제와는 별개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특구를 조금 더 편하게, 요청이 오면 가급적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신문에 보면 한국에 야간 관광문화가 없다, 밤에는 갈 데가 없다고 평가를 한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 장관님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충환 위원 제가 볼 때는 한국만큼 밤문화가 발전한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없다고 보느냐? 문제는 간판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고 또 영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외국사람이 나와서 아무 데도 안내받을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받는 현실을 깊이 헤아리시고 관광특구도 많이 해 주시고요. 지자체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간판을 영문 또는 외국어 표기를 병기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문법 제17조 및 제34조에 대해서 제가 언론자유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헌법상 규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미국의 개정헌법 1조도 그렇고 유럽의 여러 나라 예를 보면 신문을 작년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규제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특히 장관님이 지향하시는 훌륭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발상 자체를 언론을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면 규제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자꾸 규제 쪽으로 가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공공질서에 대한 규제는 있고요. 편집이나 보도 같은 데 대한 규제는 저희들이 일체 하지 않습니다.

○김충환 위원 답변은 받았습시다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리고 법 자체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아문재단 정관 변경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대법원 판례나 법제처, 법무부 다 알아보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치유가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치유가 되었다면 대법원이나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의결절차 없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처장을 임용 결정한 것은 사전에 이사들의 동의를 구한 점에 비추어 고의성은 없으나 절차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부의 정관 변경 허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관 변경 효력의 완성에 관한 문제로 기본행위에,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하자가 있으면 정부 산하기관들이 그것을 고쳐서 치유를 해야지 방치된 상태로 그냥 된 것으로 해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다음에 제가 게임산업에 대해 종사자들에게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게임산업정책에 대한 자료집을 하나 냈는데 참고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전면적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성인용 오락실 상품권 유통과 관련해서 상품권이 위조가 되었느냐 아니면 따로 만들어 썼느냐와 관계없이 배당률을 999배 또는 9999배씩 준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동전을 가지고 하더라도 결국은 문제가 되게 되어 있으니깐 제가 볼 때는 배당률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통사찰 소방대책에 대해서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소화기는 강원도의 미 상주사찰인 백련정사 한 곳을 제외하고는 906개 사찰이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소화기 1개는 불자동차 1개와 맞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소화기 숫자가 부족하지 않는지, 소화기를 더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소화기를 좀 더 충분히 배치하고 교육훈련을 잘 해서 스님들이 소화기를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잘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주십시오. 국산 게임 불법 복제물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국내에 역수입되어서 유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보호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미디어 인프라가 여러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문광부는 영상미디어센터, 그 외에 영화진흥위원회, KBS, MBC도 만들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하셔서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관광공사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변제능력 문제인데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이자율을 1% 낮추고 원금 상환기간을 18년 내지 23년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충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현대 아산의 남북관계 문제는 김윤규 부회장에 대해서 ‘종기다’ 이렇게 듣기 민망한 표현을 회사 측에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의 성과에 비해서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간접 경험으로 볼 때는 북측은 우리하고 사회체제나 관행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것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이것이 잘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 사장께서 노력해 주시고 문광부에서도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김재운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세계의 문화유산인 한글은 우리가 잘 가꾸고 잘 아끼고 잘 보듬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회가 국어기본법을 제정했는데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국어책임관을 지정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이 1월 27일 만들어졌습

니다. 시행일인 7월 28일까지 6개월의 기간은 그것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도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감기간 동안에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한글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조속하게 지정해서 정부가 한글을 사랑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현장은 우리나라를 문화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현장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문화현장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장관님께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현장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국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복수미디어랩 도입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시장의 원리상 필요하다고 보나 당장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방송위원회가 지상파TV의 낮방송 허용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낮방송 허용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송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어떤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 저희들이 존중하고자 합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케이블TV와 신문 쪽에서도 만만치 않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는 전통과 창조가 숨 쉬는 나라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우리 공예산업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인사동입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지 그리고 인사동의 공예품 70% 이상이 지난번에 말

썸드렸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등 국적 불명의 상품들입니다. 여기 경북궁 경회루에 있는 공예품 상점에 있는 이 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상품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조잡스럽습니다. 국내에 전시되고 있는 공예품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겠습니다. 외국의 공예품 판매 현장. 자, 우리 대한민국의 공예품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예품 전시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예품들이 이렇게 정말 구매했고 싶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예상품의 실태를 보면, 영세합니다. 그리고 육성의 필요성,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고부가가치 명품산업이고요. 아까 디자인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디자인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특히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천연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인간의 손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히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예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독창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데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실태조사 하시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특히 우리의 주요 관광지 실태도 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특히 상품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 포장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이미지, 문화가 잘 담긴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인적자원을 자꾸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예산업이 브랜드산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공예 산업이기 때문에 명품산업으로 가야 하고 생활공예산업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특히 프랑스나 유럽에서 우리의 공예상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류와 함께 연계되는 공예산업으

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화이부동, 실용성 경제치용, 유익성 이용후생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나 장관님이나 국감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대한민국의 전통이, 제가 왜 전통과 창조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기치로 내세웠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곧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기틀이고 오히려 우리의 문화산업을 더욱더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또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악들은 바로 해금 연주곡, 그리고 가야금 소품 연곡들인데요. 유럽의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바꾼 음악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오방색, 우리나라의 색깔 오방색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동영상이기 때문에 죽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통과 창조가 숨 쉬는 나라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공예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방색입니다. 파랑, 빨강, 노랑, 하양, 검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파랑색은 동쪽, 나무, 봄, 기쁨을 의미합니다. 지금 도라지 해금 연주곡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빨강색은 남쪽, 불, 여름,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이게 전부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색깔이. 우리나라의 노랑색은 중앙, 흙, 공간, 욕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하얀색은 서쪽, 쇠, 가을, 노여움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정색은 북쪽, 물, 겨울, 슬픔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전부 문화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공예산업이 있고요. 공예는 디자인도 의미하고 좋은 포장, 이런 아름다운 색깔로 포장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화를 보겠습니다.

이 민화가 전부 공예상품으로 바뀌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접시에 그려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십장생으로 옷이라든가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예품, 아까 얘기한 인사동의 저질 공예품 보십시오. 우리의 민화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다완입니까? 이게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창조적인 전통을 창조한 모습입니다. 전통과 창조가 숨 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방으로 다시 바꿉니다. 이게 바로 명품 가방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공예상품입니다. 공예문화상품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술과 문화, 산업이 함께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통과 창조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공예산업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공예의 우수함은 바로 우리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우리의 전통과 창조가 숨 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의 방향,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의 기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선 아주 좋은 자료를 보게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진흥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기술·제품 개발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이미지·문화·관광상품 개발, 제작지원 또 독창적인 제품 개발의 역량 축적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공예문화상품 전자상거래를 구축하겠고요, 공예문화상품 표준화 및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공예문화산업의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또 공예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공예유통구조 기반구축 및 해외 판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중소 유망업체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우수업체 지원확대 등 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글로벌한 공예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확인감사고 해서

확인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간혹 목소리가 빠르고 높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KBO로부터 병역을 필한 프로축구·야구 선수 373명의 실명 병적증명서를 제출받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이 중 194명, 52%가 면제자이고 현역은 114명에 불과한 30%쯤이었습니다. 일반인 면제율의 25배입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체적으로 보면 프로축구의 경우 병역필 179명 중 105명, 프로야구의 경우 병역필 194명 중 89명, 축구의 면제율이 야구에 비해 12.8%포인트 높게 나타나서 일반인의 예상과는 달리 야구보다 축구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이하고 충격적인 것은 전체 면제자 194명의 98%인 190명 거의 다가 제2국민역으로 면제를 받았고 제2국민역으로 면제받은 190명 가운데 121명이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수년이 지나서 다시 신체검사를 해서 제2국민역으로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면제를 획득하는 통상적인 수법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4년 10월과 올해 2005년 9월 21일 두 차례 프로축구연맹과 KBO로부터 프로선수 병역현황을 제출받아 본 결과 각각의 수치에 납득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허위자료 제출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22일 문광부 감사 후인 9월 30일 각 구단으로부터 원본대조를 필한 선수 개개인의 실명 병적증명서 사본을 전격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 것입니다. 장관님 앞에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상 최초로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선수의 병역실태에 대해서 실명 병적증명서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체 면제자 194명의 98%가 제2국민역으로 면제가 됐는데 제2국민역 190명 중 121명이 1급에서 4급 이것은 현역입니다. 상위 신체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군대를 안 가고 있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재신검을 해서 제2국민역으로 면제되는 희한하지만 전형적인 면제 획득의 방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전체 제2국민역 190명 중 24.7%인 47명이 1급 판정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인적사항은 빼고 증명서를 복사해 드렸습

니다. 1급을 받았는데 재신검을 해서는 제2국민역으로 빠지는 회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위등급 판정 후에 수년 동안 입대를 안 하고 있다가 재검받아서 제2국민역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축구·야구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병으로 그렇게 됐느냐? 어깨 탈골, 어깨 수술, 습관성 탈골, 허리디스크, 무릎십자인대재근술, 연골파열, 신장염, 다한증, 땀 많이 나는 겁니다, 골수염, 고혈압 등입니다. 강도 높은 신체훈련을 고려한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허리디스크 고혈압 골수염 환자가 어떻게 프로선수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최근 5년 내 병역문제로 사법처리를 받은 프로 선수는 2004년 병역과동으로 인한 프로야구 선수 51명뿐입니다. 그 여파로 병역을 필한 프로야구 선수는 243명에서 199명으로 줄었고 프로야구의 면제율 역시 53.8%에서 45.9%로 낮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축구의 경우는 2004년 64.6%에서 2005년 58.7%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야구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해서 지난해 야구 병역과동으로 프로야구의 병역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일반인의 예상과는 달리 사실은 프로축구의 병역문제가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2일 본 위원회의 지적에 프로축구연맹은 각 언론사에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억울하다고. 실제 프로축구선수의 면제율은 21%에 불과하고 면제율이 야구에 비해 높은 사유가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상위입상에 따른 군면제와 상무군 입대 때문이라고 그럴듯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위사실입니다. 우선 프로축구연맹이 주장하는 21%의 면제율은 본 위원회 병역을 필한 선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미필자까지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속였습니다. 통계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전체 국내 프로축구선수 중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는 2002월드컵 4강 진출에 따른 총 4명인 김남일 송종국 이천수 현영민에 불과하고 일반인의 예상과는 달리 국제대회 상위 입상으로 인한 면제는 극히 드뭅니다. 해외파 선수로 박지성 설기현 이영표 차두리 안정환 최태욱 등 6명이 면제를 받았으나 해외에 적을 두고 있어서 통계수치와는 무관한데 그것을 끼워 넣은 것입니

다.

아울러 상무입대라는 것은 상무팀의 선수로 군복무를 마치고 각기 소속 구단으로 복귀되는 제도로서 상무 출신 선수는 현역입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면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빛나는 이동국 선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제경기 상위 입상자나 상무팀 입대 등은 높은 면제율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따라서 프로축구연맹의 해명은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처벌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성공의 여파로 인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일반인의 우호적 인식에 편승하여 병역문제를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 지난해 병역비리의 경우 프로야구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검·경의 관심 밖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프로축구 병역실태에 대한 별도의 수사나 병무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프로축구 스스로 병역비리와 관련한 의혹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감사청구나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평소 문광부나 병무청 등이 실태파악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다음은 영등위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영등위의 게임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최근까지 심의위원으로 일했던 어떤 인사의 견해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따로 게임기에 대한 설명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존 위원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심의시작 후 석 달 정도 되어서야 비로소 심의업무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심의방식은 다수결 원칙이라기보다 상호협의를 의한 심의였으므로 몇몇 업계나 게임시장을 아는 심의위원들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임기, 계속되는 회의, 오랜 토론, 장시간의 심의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게임 심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영등위는 자체적으로 심의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는 소회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심의구조 하에서는 1조 원이 넘는 게임시장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까지 애

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심의보다는 관리체계를 이루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생생한 현장의 증언을 듣고 장관과 영등위 위원장이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영등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간의 부조리와 관행을 말끔히 털고 현 구조의 문제점을 낱알이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둘째 더 이상 영등위의 구조로는 게임물 심의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일본의 경우 심의업무가 정부주도의 규제위주가 아니라 민간협회 주도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서 반드시 영등위가 아니라 문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게임물 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답변을 반드시 서면으로 성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역신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잡음이 많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장님 나오셨지요? 10월 7일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그림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에서 위작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16인이 어떠한 기준으로 임명됐는지, 관장님께서도 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 쪽에서 반론을 대단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서면답변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회의 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뒤에 계시는 증인들께서 이렇게 협소한 자리에 오래 앉아 계시게 돼서 매우 불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잠깐씩 자리를 떠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잠깐 뜨셨다가 들어오시는 식으로 하는 걸 양해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

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정병국 위원 김윤수 원장님, 지금 이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위원 선정을 국립미술관에서 한 것입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위촉은 누가 한 것이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처음에 검찰에서 현대미술관에다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한다고 다만 과학실에 있는 기계에 의해서만 검사결과를 알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감정위원 명단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으냐고 하기에 그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복수로 추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일 테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검찰에서 하시오 이렇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내가 검찰에 나가느냐 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한테 재삼 장소만 좀 제공해 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 줄 수 없느냐고 누차 얘기하면서 국가기관에서 같이 협조를 안 한다고 굉장히 저희들을 힐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장소를 제공하고……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감정위원들 인적사항을 전부 다 제출하실 수 있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우리가요?

○정병국 위원 예.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검찰에 준 명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병국 위원 그것을 바로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 끝나고 나면 또 증인 불러 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그런데 제가 명단을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자료를 찾아 봐야 되는데 가능한 대로……

○정병국 위원 얘기해서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복사하면 되잖아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하여튼 저희들이 가진 것은 없고 검찰에 있으니까 그쪽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 김재홍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정착돼 감에 따라서 이것은 주 이틀여가제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문화관광부에 적극적인 국민여가 정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부로 치면 산업자원부와 노동부의 일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최근에 주5일 근무제, 주40시간 근무제 이후에 국민들의 여가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여가생활을 만족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53.3%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별 변화가 없다는 얘가지요. 그 답변이 과반수를 넘는 것입니다.

또 여가생활의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TV시청, 잠자기, 음주 같은 것이 주종이었어요. 매우 정적이고 소극적인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외적 여가 인프라가 그만큼 없다는 얘가지요. 여가를 위한 여행, 관광도 양극화돼서 돈 많은 사람들은 고가 관광여행을 즐기는 것이고 해외 골프여행 나가거나 하는 것이고 돈 없는 서민들은 그냥 잠자거나 TV 보거나 소주 한 잔 마시거나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여가생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행히도 국민들에게 조사해서 나온 것은 주5일 근무제 이후에 자기 계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중요한 순으로 자기 계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가가 늘어남에 따라 각 국민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인식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고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문화관광부에 국민 여가생활을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 적극적인 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가만족도 그것은 바로 국민 삶의 생활의 질인 것입니다.

정동채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런 여가정책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 여가생활 정책과 여가생활 지원부서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먼저 여가실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여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를 말씀하셨는데요. 부서를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여가시간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또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서 다양한 정책을 먼저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부서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위원 물론 외국의 사례들, 선진사회의 여가정책 부서를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들, 일본 같은 나라들은 대개 다 여가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과 심지어 공원 관리까지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지방문화권,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쉼 값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산업지방은 산업지방대로 해안가는 해안가대로 문화유적이 많은 데는 문화유적이 많은 대로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가생활정책에관한기본법 또는 가칭 여가진흥기본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문적인 정책부서를 넣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장관에게 질의했는데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답변이신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재 진행 중인 여가기본법 제정을 통해 여가기본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런 새로운 부서를 설립해서 그것을 다뤄야 될지 그것을 TF팀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정부의 기구를 또 하나 만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재홍 위원** 물론 예산이 새로이 들어가고 정부기구가 비대화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여가생활 만족도야말로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는 데에, 국민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창달하는 데도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는 게임산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저는 게임산업에 관해서는 사회적 병폐, 병리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규제하고 대처해 나가되 국가 전략산업, 수출산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그것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진흥도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규제와 진흥, 지원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방적인 규제로만 가면 이것은…… 국제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게임산업을 얼마나 수출하고 있습니까? 많거든요. 말하자면 국익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에서 활성화시켜서 세계시장에 우리가 문화콘텐츠산업의 강국으로서 그 한 분야로서 게임산업을 진흥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지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너무 폭주하는 업무랄까, 지금까지 전통적인 종전의 업무에 매여 있고 못 따라가는 현상이 많다. 지난번 영등위 현지 심사에서 여러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지금 영등위의 심의청구 업무의 전체 70%는 일본의 중고 빠징고 기계를 수입해서 그대로 신청하는 거죠? 영등위원장 나오셨습니까?

맞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 위원** 이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민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의 중고 빠징고물 심사통과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대로 100%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말고는 대개 다 통과하는 것인데요. 이게 업무의 폭주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규정대로 하면 게임물 심의청구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 이내에 결과를 내게 되어 있죠?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법적으로는 7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2주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다른 영상물은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게임물은 2주 이내일 것입니다.

게임물 이것의 유통기간, 그 생명력이 얼마나 됩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대단히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김재홍 위원** 평균 6개월 정도입니다.

지금 평균 6개월 정도의 생명력을 갖는 그 게임물을 심의받는 데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규정대로 2주 이내에 해 주어야 되는데 평균 3, 4개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러면 6개월의 평균수명에 심의 단계에만 3, 4개월 걸리면 이것 되겠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김재홍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등위 감사 때 한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게임물의 심사는 기존의 영등위가 아니라 새로운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때 시장의 요구 또 사정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민·관 합동기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 합동 자율심의기구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업계의 희망대로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균형을 맞춰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포함한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이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게임물 전문 등급분류기관 지정제도도 포함된다마는 국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홍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물의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잘 정책적으로 해 주시고 근본적인 심의기구 개편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지난번 상주 불상사를 계기로 영화상영관을 조사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214개의 영화상영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굉장히 고층화, 대형화, 복합화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단독 영화상영관은 별로 없

어요. 말하자면 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얘기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미 2003년 12월 3일자로 소방방재청이 그 위험성을 제기하고 영화진흥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더라고요. 문광부에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 부는 이제 전국 극장연합회 또 서울시극장협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현재 CGV, 메가박스 등 복합 상영관에서는 화재 시 대비요령과 피난안내 등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필요할 때 입법을 추진하겠고요.

바로 어제 우리당에서 정책위원회 또는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 등을 모시고 이러한 공연 관련된 안전의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놓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법 개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내연재료 또 관람인원에 비해서 통로 폭이 너무 협소하고 피난 계단 수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 늘상 사고 생길 때마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화상영관에 대해서 문광부가 책임지고 개선 조치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계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 위원 손봉숙입니다.

1985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 근거한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광부에서 서면답변서가 왔는데 대단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한시법에 불과한 지원법이 20여 년간 최초의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허가받았던 옥외광고 대행업자가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공개입찰 한번 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옥외광고 대행업을 유지해 오는 것을 과연 합법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존 시설물 재활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왔는데 제가 작년 국감에서 장관님께 기존 카지노가 13개나 되는데 그 중에 2개밖에 흑자운영을 안 하고 있는 마당에 구조조정을 해 주면 되지 왜 3개를 신설하느냐

냐 그랬더니 이미 특혜를 받았는데 또 특혜를 주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카지노 하나 신설하면 몇 백억이 드는 돈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물, 옥외광고물 하나 철거하는 데 얼마가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재활용 차원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제가 듣기로는 길목 좋은 곳에 옥외광고 간판 하나 가지고 있으면 3대가 먹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특혜를 20년간 수없이 법이 연장되고 개정되고 연장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글썽요. 답변이 조금 성실치 못한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광고사 지정은 그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광고사를 지정……

○손봉숙 위원 제가 시작할 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특별법 관계의 문제를 진단할 것입니다. 사실 특별법 옥외광고물이 특정 대 행사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문제점은 일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규격이나 설치기준, 설치조건 같은 것을 완전히 위반하는 특별한 광고물이라는 점도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특별법의 기속을 받고 있는 광고 간판들은 반환경적이고 반문화적이고 반안전적인 시설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은 법의 본 취지대로 설정한 바의 사업을 완수하게 되면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특별법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정책을 계속해서 끝까지 추구할 테니까 문광부에서도 이 자료를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복수 미디어랩 도입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복수 미디어랩을 도입하면 불가피하게 취약매체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방송발전기금이 지원을 할 건지 지상파 방송사가 또 일정 금액을 분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취약매체사들이 독립적인 재정방안을 수

립하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TF에서 지금 논의를, 그 지적해 주신 건 됐고요. 결국 종교방송이나 이런 군소라고 일컬어지는 그 방송이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봉숙 위원 종교방송들이 처음 시작할 때, 설립할 때는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미디어국장, 답변을 하십시오.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미디어국장입니다.

종교방송이 당초 방송사 설립 허가 시에는 광고 여부에 대해서……

○손봉숙 위원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리고 정부가 어느 시점부터 광고를 쫓는지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광고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연도부터 어떻게 광고를 지원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알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광고문화회관을 짓고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손봉숙 위원 건축비 재원 확보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방송광고공사에서 12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러면 광고회관의 소유권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소유권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광고주협회에서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OBACO와 이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봉숙 위원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겠습니까? KOBACO가 돈을 벌어서 2000억 원에 해당되는

거대한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KOBACO의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광고계에서는 광고문화회관의 일정부분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방송광고공사와 동등하게 배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손봉숙 위원 문광부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 지분 또는 관리·운영 지분 양도는 과도한 증여세 부담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고문화회관의 설립취지를 살리면서 명실상부한 광고의 전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수적인바, 이 문제는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광고계 및 광고산업의 발전에도모하는 데 유익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모범답안을 써 주신대로 읽으셨는데요, 그것보다 문광부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KOBACO도 설득하고 광고계도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 이전에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내년 5월 완공일 이전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리고 공익광고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무료편성을 하면서 공익광고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C급대 시간에 몰리고 있어서 공익광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KBS, MBC, SBS 다 시간대를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물론 저도 공익광고가 무료편성을 기본원칙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이 있고, 문제는 공익광고가 이렇게 무료로 갈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드는 공익광고가 전광판에는 유료이고 방송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정부광고가 전광판에는 반대로 무료이고 방송에는 유료입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도 정부

광고나 공익광고나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편성비율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유료, 한쪽은 무료 이렇게 하면서 공익방송이 원래 취지대로 가야 될 목적 달성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의무편성을 시급별로 편성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무료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공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보통 선진국에서도 신문이나 인쇄매체나 방송에서 보통 광고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인쇄매체는 돈을 내고 있거든요. 방송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이 행해지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대북 관광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 내지는 관광 대가라고나 할까요, 이런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새 아시다시피 현대 아산하고 북한 관광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광사업 전체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가격 책정,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 또 관광 대가를 산정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문광부하고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선 대북 사업하는 민간사업자와 북한 간에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통일부 등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민간단체에만 내버려 뒀을 때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적정한 선에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통일부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대한축구협회가 여러 가지로 경기의 안전성 도모로 문제를 빚고 있는데요. 2004년 한 해만 보면 국내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가 국가대표 A매치가 10경기, 프로축구 정규리그가

160경기, 정규리그 외의 프로컵 경기가 78경기, 그래서 한 해 동안 축구만 총 248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간 A매치 경기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축구대회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이 미가입 상태로 있습니다.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불상사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상주 공연사건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감사 중입니다. 잠시 15분 휴식한 후에 감사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경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위원 박형준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도 그런 답변을 했고 언론재단감사에서 언론재단 이사장도 동일한 답변을 했는데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 융합시대에,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convergence)로 나가는데 유독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족쇄를 걸어서, 물론 과거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히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군소 신문들이 또는 소위 말해서 마이너 신문들이 경영위기 탈출을 위해서도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경영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장관의 인식은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의사가 있으신지 먼저 의견을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되풀이해서 상임위 때마다 나온 말씀입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여부는 여론의 다양성과 미디어 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도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논란

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규제 완화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박형준 위원 겸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언론의 독점 또는 독과점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해 가면서 신문·방송 겸영은 푸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에도 맞고 중장기적인 언론정책의 방향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일 간에 FTA 체결이 되면 지금 관광업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FTA 말씀이십니까?

○박형준 위원 예, 한일 FTA가 체결이 되면 한일 간의 관광서비스나 관광업계의 표준화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광 관계 법령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2004년에 한일 FTA 체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관광학회의 보고서가 문광부에서 발주를 줘서 한 보고서인데 여기에도 보면 현재 우리나라 관광진흥법들이 FTA 체결의 경우에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죽 나와 있거든요.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경우에 규정상에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숙박업 구조가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한류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올 경우에 중저가 숙박시설이라든지 각종 비즈니스호텔이라든지 전통 숙박시설, 민박 이런 숙박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부가 과연 충실히 준비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안되고 있으니까 FTA 체결에 따른 문광부의 관광업에 대한 대비가 관광공사와 함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FTA 체결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 관광업계 전체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형준 위원 그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불법 유통은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제기했고 오늘 여기 아케이드 게임장의 건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이미 국무총리실에서도 9월 30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그 뒤에 과연 문광부에서 상품권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이 뭐가 나왔는가 보니까 10월 10일자로 신고전화만 개설해 놓은 상태거든요. 물론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총리실에 오히려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런데 총리실에서 나온 이야기들, 여러 학자들이 내놓은 대안과 제가 오늘 여기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상품권제도라든지 심의제도, 사후관리, 건전화 방안, 그러면서도 아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업화·수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인데 특히 지금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환전행위를 우선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간접적인 해결방안도 있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간접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영업시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게임업소를 하는 업주들도 적당한 시간에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24시간 영업을 해야 될 이유가 몇몇 특정업소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해결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게임 이용요금으로 상품권을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제대로 안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1회에 한해서는 다시 게임 이용요금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문화부가 2005년 7월 1일 경품용 상품권 관리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박형준 위원 이것이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편칭을 하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박형준 위원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

를 들어 보면 이렇게 하면 결국 70만 개의 게임기를 다 바꿔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과연 문광부가 현장에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도 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학자들도 그런 대안을 내놓았으니까 관리지침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상암동 DMC 내에 문화콘텐츠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계시는데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도 지금 IT 콤플렉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펴보니 중복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래서 지난주에 열렸습니다마는 경제장관조정회의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고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통부와 저희가 계속 업무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 문제는 사실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내려가면……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전라남도입니다.

○박형준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데로 내려가면 콤플렉스도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IT가 굉장한 발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쏠려야 된다는 것은……

○박형준 위원 제 말씀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광주·전남을 발전시켜야 된다면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IT 콤플렉스가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IT 콤플렉스는 서울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산업의 거의 80% 이상이 서울에……

○박형준 위원 지방에 이런 고급 인재와 기술이 내려올 수 있는 유인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지 사실 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부산에 영상진흥원이나 이런 것이 내려가도 그 기관 자체로 어떤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거든

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물론 인력 양성이 필요하지요.

○박형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광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타 부처의 사업들과 유사·중복되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국정홍보처의 해외문화원 문제라든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일원화되었고요.

○박형준 위원 게임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정통부하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고 또 문광부의 예산사업과 문광부의 기금사업 이런 것들은 제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제가 여러 각도에서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중복이라기보다도 어떤 역할의 분담입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을 제가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경제장관조정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중복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마지막으로 카지노사업이요. 지난번에 제가 관광공사 국감 때 또 문광부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사후적으로 볼 때 한무컨벤션이라고 하는 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한 과정, 거기에 명분을 제공하는 과정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형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후적으로 관광공사도 향소 안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광공사 사장이 답변을……

○박형준 위원 향소 안 하실 것이지요? 법률적인 검토를 하니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래서 향소를 못하고요,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예?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한무컨벤션하고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2, 3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견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위원** 예단은 안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잘 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철 위원** 지난 9월 27일 대한체육회 등 체육 세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동료 문광위원님들 모두가 축구협회에 대한 불법·탈법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크게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후 축구협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탈법·위법 사실들과 각종 의혹들을 정리해서 해명하는 성격의 자료집을 지난 10월 6일에 동료 위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시에는 협회가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중에 법인화하겠다고, 그리고 축구 주니어보드 신설 및 정례브리핑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및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수용하겠다고, 분기별 회계자료의 공개 등을 약속했습니다.

축구협회가 보여 준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서 본인은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되는구나 하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드러난 적지 않은 불법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보내온 자료집과 기자회견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축구협회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요.

그동안 협회는 위기·파동이 닥쳐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축구인들 위에서 군림하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2000년 5월 세무조사 위기가 있었고 2002년 대선 때에는 이른바 서명과 사건이 있었고 대선 직

후에는 법인화를 요구하는 사회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재야파 파동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축구협회는 때로는 정면으로 때로는 숨죽이면서 여론의 동정을 살폈고 위기에서 벗어나면 즉각 본색을 드러내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2000년 5월에는 정적 죽이기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고 2002년 대선 때는 정 회장 퇴진을 요구하며 서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자격정지라는 초유의 징계를 내린 바 있고 2005년 재야파 파동 때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로 여론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위기에서 벗어나고 나면 다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러다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번 축구협회가 보내온 자료집과 회견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900쪽에 달하는 협회의 자료집을 보면서 정말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보내온 자료집을 보면 선별적으로 공개해도 좋을 증빙서류만을 첨부해서 의혹을 해명하기는 커녕 추가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진실이 담긴 사과와 해명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나마 적지 않은 허위자료가 또다시 첨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장기적 축구발전의 비전과 투명화된 재정회계 구조 및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보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찾아 보기는 힘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 사례만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축구협회 해명 진술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소년체전에 관련된 보조금을 협회에서 입금하고 출장비 및 감독관비 예산을 신청·수령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집행자가 본인에게 전달하고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혼자서 움직이는 거리가 멀고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심판에 관련된 부분은 심판 감독관 총책에게 전달하였고 경기감독관에 관련된 부분은 경기감독관 총책에게 전달해서 직원 출장비는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무런 사과도 없고요. ‘향후 국고나 모든 예산 집행·정산 시에 다른 사람의 서명으로 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쪽 마지막 대목을 보면 ‘정산하는 실제 협회에서 지출된 금액과는 달라 2개의 정산서가 필요하게 되어 정산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본인이 일괄적으로 서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않겠습니다’ 하고 이 책임을 세 사람에게 경기국 과장·대리·사원 이 3명이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닌 경기국 과장하고 대리하고 사원인 본인들이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구협회에서 제출한 서명 위조입니다. 저번에 보여 줬던 것인데요. 이게 2002년, 2003년, 2005년 참석자 서명인데 여기 유문성 씨가 진술서를 써 가지고 다시 왔어요.

2005년 9월 27일이라고 쓰고 ‘서울올림픽미술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광철 의원님께서 축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 서명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은 상기 연도에 대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직접 서명하였음을 진술합니다’ 해 가지고 2002년, 2003년, 2005년 했다고 하면서 밑에 서명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위에 것 3개하고 밑에 이것은 이번에 다시 서명한 것입니다. 또 달라요. 이런데도 본인이 썼다고 이렇게 서명 조작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발견된 불법 사실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초·중등학교 축구 지역리그 대회의 심판감독비 수령 영수증 사인입니다. 그 옆의 것은 2004년 초·중등학교 축구 지역리그 대회의 심판감독비 수령 영수증이고요. 이것은 기금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이 정산 받는, 축구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철저히 정산한 과정인데 제가 어제저녁에 다시 확인해 봤어요. 혹시 잘못 준 것 아닌가? 똑같은 복사본이에요. 그런데 2003년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2004년도 서류로 수령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1장이 아니라 15장입니다. 2003년도 수령영수증과 똑 같아요. 게임도 똑같고 게임 장소, 프로그램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2004년도 정산서에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이번 자료집에도 다시 냈지만 소년체전 때 감독관 총괄 책임자 경비정산 문제인데요. 그 진술서에 송광석이라는 분이 진술서를 해서 다시 갖고 왔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진술서, 본인은 지난 2004년도 5월 28일에 전라북도에서 개최되었던 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감독관 총괄 책

임자로 파견되었습니다. 대회 하루 전날인 2004년도 5월 27일자로 파견 감독관 4명에 대한 출장비 122만 9000원과 감독관비 77만 1000원을 협회 직원 곽태우 과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유성환, 송정우, 이영근 감독관에게 전달 및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5년 9월 30일. 대한축구협회 경기위원 송광석’ 해 갖고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2004년도에 송광석이라는 사람은 제가 전달받은 이 명단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뉘었다는 세 사람 중에 유성환 씨를 빼놓고 송정우, 이영근도 감독관 명단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서류를 갖고 와서 증빙서류라고 첨부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소위 국가대표팀이 초청되어서 외국에 나갈 때는 항공료와 체재비를 그 외국으로부터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기가 항공료, 체재비 전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민석 위원이 얘기했지만 나이키에서는 5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400억이라고 하고 현금 170억과 현물 230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착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약서는 KT 것만 공개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이런 일이 비밀비재합니다.

장관님, 소위 이런 부분을 아까 감사원에 의뢰한다고 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광철 위원 기금과 국고 그다음 월드컵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리고 체육회장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축구협회 문제뿐만 아니라 가맹단체 전체에 대한 부분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이광철 위원 체육단체들이 국민으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단체로서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책임 있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동안에는 산하단체에 대해 3년에 한 번 3일씩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협회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대개 보면 지금 각 가맹단체가 자체감사를 일반회계사한테 맡기는데 이걸 회계법인에 맡기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철저하게 법인화시켜 내고요, 다시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러나 지금 대한체육회의 인력과 그동안의 감사 노하우로 보아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철저한……

○**이광철 위원** 법인화가 된다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러면 좀 달라지지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조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제규정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이광철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장관님, 2005년도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쓴 돈이 약 1000억 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1031억입니다.

○**이재웅 위원** 올해 문화관광부 예산이 2조 가까이 되지요? 2조 조금 넘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기금, 예산 다 합쳐서……

○**이재웅 위원** 2조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면 한 20분의 1 정도 되지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올해 요청한 내년 예산이 2099억으로 2100억 가까이 됩니다. 다른 데 이리저리 흠어 놓은 것까지 치면 2100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부지 매입비 1694억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실링제로 되어 있어 문화관광부 예산 2조 3000억 정도 되는 것은 더 늘릴 수도 없는데 2100억 정도를 쓰게 되면 문화관광부 전체 예산의 약 10분의 1을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웅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도 하고 간곡히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문화관광부는 지금 국가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정말 급한 데도 많이 있는데 유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짓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장관님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다른 직원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돈을 좀 다른 데 투입을 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도 완급 조절과 시기의 선택이나 방법의 선택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최선은 안 되더라도 그다음 단계의 정책집행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쫓기기도 하고 뭇가 급하기도 하고,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웅 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무리한 사업이 있느냐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한 것들이 왜 무리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작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과 재정성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KDI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좀 법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이거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웅 위원** 아시아국립문화전당은 대규모개발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들어갑니다.

○**이재웅 위원** 500억 이상의 사업은 대규모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그 예외조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승인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 중 틀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비를 다른 사업비, 즉 기본설계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계 기획단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기본설계가, 설계 공모작 자체가 12월 2일 발표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것은 이 사업단의 계획이고 어쨌든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는 예산회계법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설계가 안 돼 있지요? 공모는 해 났는데 안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기본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선정이며 각종 스페이스 플랜이며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가능한 단계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보상비가 먼저 들어갑니까?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재웅 위원 보상비는 부지를 선정하고 난 뒤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돼 있습니까? 기본설계를 이제 공모해서 12월에 할 거니까 실시설계는 아직 안 돼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그러니까 부지가 정비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자가 확정된 다음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아……

○이재웅 위원 부지가 정비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부지가 확정이 되고……

○이재웅 위원 부지가 확정된다는 것은 돈으로 다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이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는 밝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대로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어째서 맞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대로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를 확정하고 그것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경제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당선작을 찾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본부장님, 제가 예산회계법을 그대로 읽어드렸지요?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예.

○이재웅 위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똑똑히 들으세요.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순서대로입니까, 아니면 그 순서가 아닙니까?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그 순서 중에 지금……

○이재웅 위원 이것 보세요. 제 얘기는 예산회계법상 표현되어 있는 이 문장과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순서 중 어느 것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지금 위원님께서서는 예산회계법의 법률 절차대로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신데 그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렇게 억지를 쓰시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법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 순서에 보면 보상비는 공사비 앞에 옵니다. 그렇지요? 이 순서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예산회계법에서 못

박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비부터, 올해 600억 이상 투입했고 또 내년엔 1694억 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순서가 맞느냐는 얘기에요. 타당성 조사를 왜 뒤에 합니까?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타당성 조사는 이미 착수할 때 마쳤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나중에, 뒤에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죄송합니다.

○이재웅 위원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 이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다음에 아문재단이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특히 성균관대 문화콘텐츠미디어연구소에 준 연구용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런 검토보고서가 없다고 잡아떼다가 이제 자료를 제출했는데 문화관광부 감사결과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스무 가지 항목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두 가지와 이것을 합쳐서 1억 4500만 원인가에 아문재단에서 준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떻게 했지요?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 제가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연구비 환수조치를 하든지 명백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대한체육회장께서는 방한한 로게 IOC 위원장하고의 일정으로 먼저 돌아가시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후에는 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

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국정감사 도중입니다마는 오늘 출석한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하고 나서 문화관광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일반증인은 미술품 위작 관련하여 박찬숙 위원이 신청한 증인으로서 명지대 최명윤 교수입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정 확인의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인적 사항을 확인하게 했으므로 인정 확인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증인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기에서 신문하는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로 그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증인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증인 최명윤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의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명윤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최명윤 증인께서 가운데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윤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최명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0월 11일
증인 최명윤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 증인 한 분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증인을 신청하신 박찬숙 위원이 10분, 그 외의 위원께서는 5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손봉숙 위원 위원장님, 증인이 증언할 동안만 장소를 여기로 옮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증인이 보이지 않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네요.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차관님하고 잠깐 자리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차관님께서서는 잠깐 나가서 쉬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일반 증인들께서도 관련 없으신 분들은 잠깐 쉬시고 미술관 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 위원 사실 문화의 꽃 그림에 관해서 안목감정이니 과학감정이니 소장경로를 통해서 자료검증이니 이런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감정회사처럼 어떤 성격이든 본격적인 어떤 감정기구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최명윤 교수님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보셨겠지만 잠시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가 되고 있는 안건의 청산백운도 이것 또한 위작 시비가 있는 작품입니다.

신윤복의 속화첩입니다. 가격으로 따진다면 몇 억짜리인데 진품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김홍도의 금강사군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상범의 금강만물상 팔곡병풍 이것도 진위가 의심된다 논란이 있습니다.

이중섭의 황소와 흰소, 위에는 진품이고 아래는 위작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천경자 선생님의 미인도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왜 내 자식을 못 알아보겠는가 하면서 위작 시비에 말려서 그때부

터 절필을 선언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이중섭, 우리나라에서 위작이 가장 많은 작가가 이중섭입니다. 원화는 1979년에 기념사업회에서 공개한 건데 하나하나 끼워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제2 유형을 보면 큰 그림 속에 한 부분을 떼어내서 하나의 작품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가 여기에 있는 걸 떼어내서 이렇게 가고 이 어린이는 떼어내서 이렇게 가고, 확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고서점을 돌아서 오래 된 종이를 사서 탄소측정 연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위작 또한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십시오.

이번에 이중섭 선생의 둘째 아들, 일본에 살고 있는 이 분이 내 아버지 그림이다 하고 가지고 온 것인데 원작으로 유추되는 것은 물고기가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복사해서 했는지 이렇게 물고기가 왼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만 검찰이 진위 논란에 있는 이중섭, 박수근 화백 작품들 58점에 대해서 가짜라고 수사에 결론을 내렸고요. 그밖에 274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 속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보다 미술시장이 정비되어 있고 앞서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기구나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명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나라의 미술품이 감정되는 실상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 3개 사단법인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정협회에서 감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사설 감정업체이다 보니까 어떠한 과학적 장비라든가 분석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안목감정의 일변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목감정 일변도로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뒤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미술품의 감정이라는 것은 안목감정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목감정의 결과 전문인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의가

있을 경우 과학적 감정을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미술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미술품에서 과학적 감정을 한다라는 것은 시료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한다라는 것은 또한 미술품을 파손시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목감정을 우선시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시비가 일어났을 때 안목감정의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이중섭 사건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에 의해서 감정한 결과를 놓고 그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이죠. 그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현 체계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개인 사설단체가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에는 감정에 있어서 공인된 어떤 기구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신문에 나왔듯이 미국에서도 지금 잭슨 폴록의 그림을 가지고 진위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휘말려 있는 잭슨 폴록의 그림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입한 곳은 하버드대학교입니다.

그렇게 대학이 갖고 있는 연구능력과 분석능력이 현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정협회와 합쳐져서 하나의 힘으로 새로운 감정방법을 도출해 낸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찬숙 위원 사실은 미술품 위작 시비에 있어서 지난 4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정동채 장관께 이 문제를 정비하고 정부가 나서야 될 것 아닌가라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특별히 이번의 경우는 사건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작이라고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그 후손, 자손이 갖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내 최고 권위인 경매업체에서 내놓은 작품이 위작 판정이 나고 그래서 네 작품을 다 환불해 주고 이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의뢰자로부터 감정 결과, 그러니까 안목감정이 사실은 가장 좋은 건데 그렇게 안목감정을 할

만한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안목감정이 남긴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명운 안목감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감정요원으로 18년 동안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안목감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현대 미술품으로 오게 되면 안목감정이 고미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화랑협회와 한국감정협회가 감정한 총 숫자에서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받은 숫자는 0.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99.5% 이상이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은 과학적 기술이 결부된 외국의 감정기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 근대미술이라는 것이 역사가 짧아서 지금 현재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이런 분들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던 분들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한 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하나의 자료화한다면 감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찬숙 위원 지금 미술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침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위작 시비가 계속되고 감정기구를 설립하니 안하니 하면 더 침체될 것이라는 일부의 걱정이 있습니다.

한국화랑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걸 보니까 1982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 진위를 감정한 2525에 대한 감정결과 32%인 797점이 위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편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2003에서 2005년 8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 감정한 미술품 538점 중 34%인 199점 역시 위작이거나 감정 불능인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제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설립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9월 15일에 문예진흥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미술시장은 더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립한 이후에 정화될 것인지 또 믿을 만한 기구로 탄생시키는 데 우리의 여건은 충족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최명윤** 작품이 위작 시비에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는 시장경제가 움츠러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작품의 위작 시비가 있을 적마다 경제논리가 모든 면을 앞서 왔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까지 시비는 많이 있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밝혀 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진품인지 위품인지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설왕설래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계속해서 안고 넘어왔다고 봅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이러한 것을 검찰이 위작으로 확정을 지어준 다음에 수사를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수사가 돼서 위조범이 잡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경종이 이루어진다면 잠깐 동안의 아픔은 있겠지만 미술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도덕성이라고 봅니다. 이 도덕성이 정립되는 데 가장 좋은, 확실하게 이번 한번 밝히고 넘어간다면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있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숙 위원** 참으로 정취와 향취가 느껴지는 예술작품에 과학적 매스를 들이대고 기구를 통해서 감정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삭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애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은 늦었지만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위원** 최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이중섭 위작 사건은 해방 이후의 최대의 위작 사건이지요?

○**증인 최명윤** 예,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사실상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안 알려져서 그렇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의 성격이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우리 미술시장이 얼마나 취약한가 그리고 그 미술시장을 매개하는 화랑시스템이 얼마나 잘 서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감정을 하는 분들의 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안목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감정법입니다. 근본적으로 미술품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그것이 진·위품인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감정기구들인 화랑협회 감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한국감정협회라든지 이것이 아직 공인된 기구가 아니고 또 공인된 기구라야 좋다는 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크리스티나 소더비처럼 잘 정비된 경매시스템이 이루어져 있고, 작품의 족보가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또 미술품을 보는 안목을 높이 가진 고객들과 콜렉터들과 전문가들이 두텁게 쌓여 있다고 한다면 진·위품에 대한 시비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화랑이 미술시장을 매개하는 제도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크게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최명윤** 예, 동의합니다.

○**박형준 위원** 사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일과성 사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건 자체로 비록 미술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수천 점에 대한 위작을 제조하는 데에는 단순히 개인이 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증인 최명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박형준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술시장이 위축될까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냥 묻고 지나간다면 지난 20년간 화랑협회에서 약 30% 내지 40%의 위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중섭 작품은 75.7%가 위작이었습니다. 박수근 작품은 36.6%가 위작이었고, 특히 돈이 된다고 하는 작품, 천경자 씨 작품은 40.6%가 위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작고 작가들 또는 지금 활동을 중지한 작가들에 대해서는 위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감정시스템도 훨씬 더 효율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박찬숙 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것을 국가기구를 만든다든지 어떤 감정평가원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치주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미술시장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꼭 바람직한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서는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명윤** 지금 현재 사단법인체가 공인기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인기구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문광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허가를 얻은 기구이기 때문에 저 자신은 공인기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인기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구에서 판정한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객관성을 가지고 일반인들 시비에서 정확한 잣대로써 정립을 해 줄 것이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공인기구인 감정협회나 화랑협회에서 어떠한 감정의 결과를 내놓아도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을 때는 어떤 해결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하든 아니면 어떤 국책연구소가 되든 정말로 재질을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조사하고 모든 것을 자료화해서 그것을 근거로 판정할 수 있는 기구는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구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종의 정부 차원의 기구로 새로이 설립하는 예가 다른 나라에도 별로 없고 그런 공적인 책임과 신뢰성을 갖는 감정을 위한 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의 정부 기구로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우에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최명윤** 그 점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미술품 감정에는 안목 감정과 과학적 감정 두 가지가 있지요?

○**증인 최명윤**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주로 우리나라는 안목 감정을 활용하고 있지요?

○**증인 최명윤** 예,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안목 감정입니다.

○**김재윤 위원** 안목 감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미술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증인 최명윤** 근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전문가에 의해서 자료화되어 있는 기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 감정의 접근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그동안 안건의 청산백운도, 신윤복의 속화첩, 김홍도의 금강사군첩,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박찬숙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자신이 낳은 자식을 못 알아보는 어미가 있나’ 이런 천경자 선생님의 ‘미인도’ 이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작품이 위작 시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선생님 작품은 전에도 논란이 많았고요. 이렇게 위작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최명윤** 물론 도덕성이 해이되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작 시비가 계속된다는 것은 한번도 명쾌하게 문제점은 제시되었지만 답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여러 가지의 위작 사례들이 지금 현재에도 서로 간에 찬반·양론으로 대립되어 있을 뿐이지 어느 하나 규명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재윤 위원** 말씀하신 대로 미술품 위작 시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위작 시비로 인해서 제일 먼저 작가에게 치명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손실이 크고 또 미술시장도 위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작가가 자기 작품이 아니더라고 하고 그다음 공인된 단체에서 감정평가사가 맞다고 하면 이것도 대체 저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특히 미인도가 대표적인데 미인도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증인 최명윤** 천경자 선생님 미인도의 경우 지금 현재 천경자 선생님은 위작이라고 판정하시는 것이고 그 외의 미술계에서는 진작이라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 문제가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는데 바로 그 점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현대미술관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과학감정을 의뢰하던가 아니면 천경자 선생님이 그렇게 위작이라고 주장하시려면 현대미술관을 고소하시든가 한다면 저는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로써 천경자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림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천경자 선생님이 쓴 재료인지 아닌지 규명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우리 김윤수 관장님, 천경자 선생님의 ‘미인도’ 진품·위작 여부를 가릴 생각이 있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이 문제가 91년에 처음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 화랑협회 전문 감정위원들 그리고…… 하여튼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바뀌면서 감정을 했는데 결과는 다 진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심의하지 않은 분이 천경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전문인들의 과학적인 안목을 통해서 감정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것이 진품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발표를 해왔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작업을 한 사람들은 때로는 착각을 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파블로 피카소 같은 사람도 자기 작품을 때로는 혼동하고 자기 작품이 아닌 위품을 자기 작품이라고 인정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1999년도에 미술품 위조사범으로 검거된 권 모 씨가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그린 사람은 나다’라고 해서, 물론 형기를 마치고 나서는 자기가 그리지 않았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마는 이런 논란도 있고요.

교수님, 만약에 프랑스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작품을 감정을 한 후에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미국처럼 민간감정사협회에서 감정업무를 관장하게 된다면 이런 위작 시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증인 최명윤** 지금 현재도 국가에서 미술관을 설립한다든가 허가를 얻을 때 현재 존재하고 있는 화랑협회나 미술품 감정협회의 시가 감정 및 감정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면으로 얘기해서는 국가기관도 어느 정도 두 감정협회의 능력은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비가 걸렸을 때 그것을 판정하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으로써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지 저는 국가가 좀 지원을 해서 그것이 국가가 주도하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 가지고 하나의 발전된 과학적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감정제

도가 정립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이중섭 씨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이태성과 김용수 씨는 이 결과에 대해서 수긍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그 주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위작 시비를 줄일 수 있고 또 앞으로 올바른 감정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인 최명윤** 지금 현재 그림을 2740점을 소장하고 있다는 김용수 씨와 이중섭의 둘째 아들인 이태성 씨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검찰이 확정을 짓지 않고 그림의 진위 여부만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현재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그런 문제이지요.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저희들이 위작이라고 해서 이태성 씨가 감정협회를 고소한 사건은 아닙니다. 김용수가 소장한 그림을 이태성 씨한테 줘서 이태성 씨가 그 그림을 서울 옥션을 통해서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내용은 뭐냐 하면 나는 안 받았고 김용수는 주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줬다고 했던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검찰의 본업무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마 앞으로 본 업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위조범이 있는지, 그 그림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밝혀질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감정업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단법인체의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과학적 감정방법이 기본방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과학적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공인 감정제도가 그림을 판정을 하는 감정기구도 아니더라도 최소한 감정을 위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감정협회를 도와주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사직전에 있는 미술시장이 위작 시비로 인해 가지

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우선 이번 위작 시비와 관련해서 검찰이 개입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번 중간발표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이 위작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찰이 위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감정위원들도 아니고 감정사도 아니고요. 다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용수 씨가 이태성 씨한테 위작 작품을 전달해서 이태성 씨가 경매시장에 내놓고 했던 과정 속에서 감정협회에서 이 작품을 김용수 씨가 건넸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 문제를 찾는 것이 검찰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최명윤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않고 이것이 위작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한단 말이지요. 제가 아까 김윤수 관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관장님, 검찰에서 감정위원들을 선정했던 것입니까, 미술관 관장님이 위탁을 받아서 위촉을 하신 것입니까? 추천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누차 거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정병국 위원 제가 여쭙보는 것은 검찰에서 감정위원 16명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와서 감정을 하고 간 것입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저는 검찰이 기왕에 손을 댔으면 투명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6명의 감정위원을 선정했으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감정위원을 위촉하게 되었는지 공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위원의 안목 감정을 통해서 판정을 내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 감정에 들어갔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 그래서 방사성 탄소량 비교를 했

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당사자들이 과연 탄소량 검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본 위원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강형태 실장한테 물어봤더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탄소 연대 측정으로 정밀 연대 측정은 불가능하다, 오차는 200년 정도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이후 물품 및 작품 등에 대해서는 탄소 연대 측정으로 연대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홍원 박사라고 과학기술부 산하의 이것을 전공하는 분인데 국내에서 1962년과 1954년 작품연대 차이를 알아내는 것을 불가능하다, 이분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 누구의 검사에 의해서 이런 발표를 했느냐고 알아보았더니 사람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저는 불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찬 서울대 교수한테 물어보았더니 그 교수는 가능하다고 답을 하는데 이번에 측정을 한 사람이 모 후배가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름을 밝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최명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태까지 유야무야 하고 넘어갔던 것을 기왕에 검찰에서 손을 댔다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했어야 뒷얘기가 나오지 않고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공인된 감정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안목 감정을 하는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안목 감정을 하는 것이지요. 안목 감정을 하는 것이 프랑스 같은 나라는 공인된 기관에서 합시다라는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그 유족이나 재단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 친지나 지인들에 의해서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감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공인된 기관으로 했을 경우에 박형준 위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했듯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다만 최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비가 붙었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결말을 낼 것이냐, 결말을 내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공인 감정기구를 만드는 것이 능사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심지어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중섭의 '부부' 작품조차도 위작이다 말이야, 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것은 1972년입니다. 당시 이중섭 전시회를 했던 현대화랑측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미술관에 기증한 것인데요. 1972년 같으면 지금은 이중섭 화백의 작품가가 엄청나게 몇억씩 호가하지만 그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위작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감정을 해 가지고 진품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검찰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검찰에서 중간에 선불리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은 김용수 씨가 이태성 씨한테 위작이라고 하는 작품을 건넸느냐 안 건넸느냐 이 부분을 수사해서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 판정을 내리지 않고 검찰이 어떻게 이 작품의 진위를 판정을 합니까? 전문가들도 아닌데요. 결국은 또 다른 감정위원들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판정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가서는 종말을 고하고 미술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한국고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이 세 기관이 서로 충돌했을 경우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처리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것을 꼭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능사인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반적인 판정은 일반 감정협회에서 하되 최종적인 판결만 하는 기관을 하나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민병두 위원 미술품 거래에서 작품의 진위를 판정한다든지 질적 평가를 하고 감식한다는 것은 시장의 신뢰 구축과 가격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얼핏 예술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민간의 예술 담론 활성화랄지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술 시장 질서 형성에 오히려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실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해서, 그것이 국가감정원이든 검찰이든 진위 판정을 하게 되면 최종 승급의 판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무제한적으로, 무제한적으로 고무되어야 할 예술 논의를 오히려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국가 감정기구 혹은 검찰에 의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억압의 기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명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명운 저도 국가가 권력화되어서 개입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공인이라든가 국가라는 것은 현재 사설단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많은 과학장비들 또 이 과학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교육 이런 문제는 어느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가 도와 달라는 뜻입니다.

○민병두 위원 그런데 감정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프랑스는 국가자격제도로 법무부가 관장하는 감정사를 두고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감정사는 없고 주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감정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사례를 갖고 얘기할 때 하버드대학에서만 지원하셨다고 했잖아요?

○증인 최명운 예.

○민병두 위원 가령 우리 같은 경우도 국가의 어떤 기관을 새로 세우는 것보다 기존의 국가문화재연구소 같은 데에 시설투자를 좀 더 해 갖고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정병국 위원님 얘기했듯이 아카이브화해 갖고 예술작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을 통해서, 혹은 아까 박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래에 있어서의 족보를 체

계화해서 한다든지 하는 어떤 간접적인 지원제도 같은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증인 최명윤 제가 요번에 이 사건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저희들 피의자는 피의자 나름대로 반증 자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과학적 검증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불행한 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립으로 운영되는 화학연구소라든가 모든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실험을 전부 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국가 체제의 어떠한 장비를 지원해서, 장비 지원하지 않으셔도 미술품의 재료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 장비 갖고도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규명해 낼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국가 단체 중 어느 하나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실험을 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얻어서 저거 하면서 시료를 실험기기에 넣는 장면을 찍어야만 증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진 촬영까지도 거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국립과학연구소가 아무리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분석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의뢰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나 미술은 미술계에서 판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계가 판정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손봉숙 위원 1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박찬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경 손봉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찬숙 위원님 하십시오.

○손봉숙 위원 저도 박형준 위원이나 민병두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앞으로는 안목감정보다는 과학적인 판단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때 예술은 없고 과학만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마지막 단계에서 과학에 의뢰를 하게 될 텐데요. 역시 안목을 가지고, 안목을 계속 기르는 교육을 좀더 전문화한다든가 활성화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미술 감정은 특정 감정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감정을

하고 또 그 사계에서는 그 이름에 따라서 본인이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자율적이고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존의 민간단체에 정부가 지원할 방법을 갖는다든가 감정가들을 더 키우는 데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만약에 국가기관은 위작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진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가기관의 판정을 믿어야 됩니까? 국가기관을 세웠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위험이 예견되어서, 국가기관이 관료화되어서 관료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러면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런 걱정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증인 최명윤 맨 처음에 제가 이 법안 발의를 들었을 때 비서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가 이것을 주관했는데 만약에 틀렸을 경우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저거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은 재단법인체로 독립을 시켜서 국가가 인정하는 국책연구소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의 시스템은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다 하는데 한 가지, 미술품의 감정은 미술품의 감상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감상을 가지고 미술품을 감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냉철하게 객관적인 기준치를 가지고 그 그림의 진위에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보존과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안목감정보다 과학감정이 우선한다고 말은 안 합니다. 최대한도로 감정방법은 안목감정이 우선해야 되지만 상충됐을 경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과학감정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찬숙 위원님, 한말씀만 하십시오.

○박찬숙 위원 그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 어린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피카소의 몇 번째 애인이었는데 그 시대에 그런 작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마저 진품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축적된 역사 이런 게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데 자료감정이 과학적 감정에

의해서만 꼭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대라면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장비나 인력 보유가 개인적으로 또 사단법인 차원에서 힘들고 국책연구소에서 분명히 그것을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해 주지 않고 거부한다면 중간 안으로서 재단법인 국책연구소의 발족은 아주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둔다면 미술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중들은 그림을 외면하게 될 것이고 소장자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불안할 것이고 그리고 화가들은 창작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이 예술에 개입한다라는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미술시장을 발전시키고 또 소장하고 싶은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정도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장관님께서도 이런 감정기구 설립을 위해서 TF팀을 설립하시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발의한 문예진흥법 개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을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가원 설립의 전 단계로,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위원님도 동일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연구소 같은 것을 설립해서 이 문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 위원 검찰이 미술품을 어떻게 감정해 내느냐고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이 작품을 가지고 안목감정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감정이나 소장 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짜라고 판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래서 내년에 이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 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찬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장관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결론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위작 시비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기로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칩니다.

더 이상 일반증인에 대해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증인은 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명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경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 낙타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낙타의 시력이 최저 4.0, 보통 평균 7.0 되거든요. 10m 앞에 가는 개미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시력은 완전치가 2.0, 2.0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시력의 완전치·최대치인 2.0, 2.0을 따 가지고 2020위원회를 만들어서 2020년에 예측할 수 있는 최대치, 미국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전에, 아마 싱가포르 사람들이 시력이 좋은가 봐요. 2030위원회를 만들어서 리관유 수상의 차 번호판도 2030이라고 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 역시 3대 이익을 대변한다 해서, 21세기 신기술·21세기 신문화·21세기 신이익을 대변한다고 해서 2020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문화산업에 있어서 만화의 중요성을 국정감사 첫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만화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세계 문화산업 비중에 있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21세기는 텍스트의 시대가 아니라 비주얼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그래

서 오늘날 만화는 영화적 상상력의 제왕이다, 기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화 양대 단체인 한국만화가협회 이현세 회장과 우리만화연대 이희재 회장이 전체 만화가들과 함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이 1983년도에 해외만화출판 쿼터제를 도입해 갖고 남미국가에서는 브라질이 비교적 만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도 일본만화가 출판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스크린쿼터제처럼 해외만화출판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대역저작권 문제인데 이런 만화쿼터제, 출판쿼터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침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어제 만화가협회 분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는 영화의 눈부신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우수인력 유입, 표현의 자유 보장, 투자자본 유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만화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병두 위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정책 자료집을 통해서 그것을 제기한 이후 만화계 전체에서 지금 상당히 강한 강도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망칠 수도 있다, 오히려 발전시킬 수도 있다 하는 오랜 논란 끝에 20여 일 만에 만화가협회에서는 순기능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나름대로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질 사례에 대한 연구도 확실히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드린 정책 자료집도 좀 보시고 또 앞으로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적 논의를 모아 가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민병두 위원 한국 근현대 예술자료는 한국에서는 찾을 수 없다, 외국에서 찾는 것이 더 빠르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웰컴투동막골, 지금 한 700만 명 동원했나요? 또 박수칠 때 떠나라, 이것 원작 자체가 연극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공연이 보존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극공연이 보존되어 있는 예가 거의 없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모든 공연을 아카이브로 정리하고 있는데.

드라마 호랑이선생님, 은실이, 이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지요? 일출, 이것은 이금림 씨가 KBS에 가서 방영됐던 자기 작품을 찾으려고 했더니 다 분실되고 없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 개탄해서 그다음부터는 자기 작품은 자기가 직접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수사반장을 연출했던 김승수 PD도 마찬가지로 수사반장이 보관이 안 돼 있어 갖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녹화를 뜨고 있다는 것이지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대본도 보관하고 그 당시의 각종 소품들도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아카이브화 돼 있는데, 문화가 사람들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빼놓고는 다 기록이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기록의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보니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유균 위원장님, 한국영상자료원의 이효인 원장님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공감하고 있는데 예산 투입을 통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문화재청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고통의 역사, 슬픈 역사도 역사다’, 다행히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인권기념관으로 보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세균부대인 731부대를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대대적인 보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군위안부 같은 경우는 21세기 우리 인류에게 가장 뼈아픈 교훈을 줄 수 있는 인류역사의 한 기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곳은 상하이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 청사 옆에 조그마한 한 벽면만 남아 있고 수없이 드나든 종군위안부 수용소는 다 없어졌어요. 중국이 이것을 세균부대에 이어서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대 할머니들이,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인권과 평화의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30억을 목표로 기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아진 게 2억입니다. 그 2억 중 1억 3000만 원은 할머니들이 모은 거예요. 할머니들이 미국 가서 강연하면, 저도 저번에 미국 가서 강연하는 것 봤는데 미국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울고 존경의 염을 표현하고 NPR 같은 라디오에서 생중계하고 그럴 정도입니다.

타이완에는 이미 성노예기념관도 세워지고 타

이완 할머니들이 해외에 나가서 증언을 할 때는 타이완의 해외공관에서 나와 갖고 할머니들을 안내할 정도로 그분들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역사의식을 갖고 장관님이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진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우리나라에 홍보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작년의 PGA대회 홍보효과가 3000억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방영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에 대해서 특집을 만들어서 2시간, 3시간 중계해서 보여준다면 제주도에 대한 홍보효과가 3000억 원이 되겠지만 홀과 홀 바뀔 때 가끔가다 그림 보여주고 그다음에 골프장 이름 몇 번 나오는 것 갖고 과연 3000억이라고 산출할 수 있는가?

박세리가 어느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더니 삼성에서 박세리의 삼성로고를 4시간 동안 전 세계의 시청자가 봤기 때문에 2500억 원의 광고효과가 있다 하는 계산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지난해에 뉴욕에서 뉴 이어즈 이벤트가 있었는데 브로드웨이에 있는 LG에이드 전광판을 지나가는 200만 명이 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1500억 원이다 이런 계산법은 저는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부기관이나 기업이나 그것을 받아 쓴 언론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홍보효과에 대해서 단순히 인지도를 제고한 것인지, 이미지를 제고한 것인지, 관광상품이라든지 상품매출 효과로 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님, 지난번에 제가 동판패널에 오류가 있다고 그래서 시정을 했지요? 그다음에 한국어문화회하고 해 갖고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지요? 앞으로 개관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견무 열흘 전까지는……

○민병두 위원 열흘 전까지는 완료될 것 같아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견무 예.

○민병두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한글은 그렇게 교정을 했는데, 그것을 상당히 반영해 주셔서 좋은데 영문이나 중문이나 일문 같은 경우

는 도대체 검증절차가 있었던 것인지 특히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틀리면 그 나라의 박물관 수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견무 그것도 똑같이……

○민병두 위원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에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님과 이광철 위원님과 제가 동남아 3개국의 한류실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직접 쓴 동남아 한류 견문기가 의원들의 외교활동의 일환으로서 상당한 정도 반향을 얻었고 제가 이 일로 30회 정도 TV,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이완에 갔을 때, 타이완 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차관급이던데 그때 보여준 게 있어서 오늘 결과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쌀입니다. 타이완 쌀인데 여기에 이렇게 한시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농장에서 어떻게 만들었고 하는 제품인증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쌀인데 이것만큼 디자인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 게 없다고 하잖아요.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쌀을 이렇게 포장해서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하면 5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 하나에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좀 보시고 한번, 아까 김재윤 위원님이 공예품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말씀하십시오.

○손봉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께서 종군위안부라고 그러셨는데 종군위안부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고쳐서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건의입니다.

○민병두 위원 쉼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 위원 박찬숙입니다.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늦지만 오랫동안 문광위원회가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제가 2000년 이후 명예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31명 중 26명이 산하단체기관에 장이나 고위 임원으로 취업했다, 전문성과 상관 없이 유관단체로 간 임원도 참 많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답변이 왔는데 후배를 위해서 정년을 3·4년 이상 단축해서 용퇴한 거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이런 데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답변이 왔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하단체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낙하산 관행을 깨고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인선을 위해서 민간에도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 퇴직공무원도 함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임하는 절차, 공모시스템을 바꾸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산하단체 임원의 인사에 있어서 앞으로 개방과 경쟁의 원칙에 따라서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인선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대안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많은 상품권에 관해서 여러 위원들이 정말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락실의 사행성 문제나 불법 환전 만연된 것, 위조상품권 제작·유통, 사실은 비위의 종합선물세트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의 질의에도 장관께서는 워터마크지로 이것을 전환해서 막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나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질의를 한 사흘 전에 써 냈는데 어제 게임산업개발원에서 말하자면 카파라치처럼 상파라치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신고할 경우에 50만 원 주겠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신고포상금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럴 경우에 카파라치 때처럼 무한대로 해서 아주 직업화하는 사람을 막고 횡수를 제한하고 상한액을 해서 하는 건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신고포상금제는 10월 10일부터 게임산업개발원에서 하는 것……

○박찬숙 위원 제가 하고 싶었는데 어제 그 제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는 무한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0회 또

는 5회 등 어떤 횟수와 상한액을 정하는 건 어떻게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또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상품권이 난립되고 환전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 경품으로서 상품권을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박찬숙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완벽한 독립성 제고의 대안으로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에서 기구의 격상에 알맞게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은 어떠냐고 질의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위촉하고 꼭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 주셔서 법을 개정해 주시면 저는 어느 분이 해 주셔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박찬숙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계신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권에 대한 권리 때문에 사실 참 말이 많습니다. 2004년 한해 신탁액이 555억 원이고 협회수익만 103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개선방안을 몇 개 제의하겠습니다.

협회 혼자서 독점할 게 아니라 2, 3개 정도의 협회를 경쟁체제로 뒤서 선택의 기회를 작사나 작곡가들에게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저작권 징수체제가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좀 어디에다 대행하게 해서 투명하게 하는 건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작권보호협의체가 이제 막 구성돼서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제안도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문광부의 신탁관리단체 7개 협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자체 특별 감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송 등 쟁점현황하고 관리효율의 적정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협회사무처 근무 직원 수하고 임금의 적정성, 임금을 얼마를 주시는지 또 신탁계약기간의 적정성 문제, 경쟁체제로 신

탁관리체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레저도시 이것 상당히 여러 위원께서도 제기하셨고 저도 했습니다. 왜 심사할 사람하고 심사받을 사람이 동행해서 돈 쓰고 갔다 와 가지고 갑자기 바뀌었느냐 이런 것까지 했는데 문제는 해남·영암관광레저도시에서 불과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남화원관광단지가 91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797억 원인가 돈이 들어가는데 민자유치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서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관광레저도시를 만드는데 이게 세법에 있어서 해남·영암관광레저도시는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인지, 한쪽 사업은 폐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질의를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2개의 사업이 각자의 별도의 법체계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박찬숙 위원 장관님, 죄송합니다만 91년부터 지금 2005년인데 14년 동안……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데 화원단지는 지금 다소 속도가 느리지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남·영암은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박찬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레저도시의 기업도시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국세 중 50에서 100% 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화원단지를 흡수하려면 화원단지가 기업도시특별법에 맞는 그러한 자격요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러한……

○박찬숙 위원 현재는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만 신청하게 되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도……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지요.

○박찬숙 위원 경인방송의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문광부에서 외주제작 전문채널을 경인방송에서 외주제작 비율을 어느 정도 하면 포기하겠다, 신용언 국장이 말했다고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이 답변했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도 그 자료 봤는데요. 그것이 저희와 방송위원회가 협의를 해 온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입

니다. 그래서 100% 외주전문채널을 저희들은 목표로 세웠으나 현실적으로 지상파방송을 또 하나 만든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정부가 100% 방송국을 운영할 것이냐, 관변방송을 또 만들 것이냐, 아런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을 조정해서 방송위원회와 저희들이 이해를 조정한 것입니다.

○박찬숙 위원 그렇다면 관변방송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사실 정부도 부담이고 또 하나는 공중파가 지금 재허가를 받지 못해서 저렇게 썩썩하게 놓고 있으니까 그쪽에 진출하시겠다는 것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진출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주전문채널화를 하자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숙 위원 예,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기협이 내정된 것으로 중기협에서는 10월 5일에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정부의 내락을 받은 듯 말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케이블을 하겠다 중기협에서 말하니까 그러지 말고 공중파로 하라,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동행했을 때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송위원회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찬숙 위원 장관님께서 모르신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제가 몰라도 사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방송위원회에서 답변할……

○박찬숙 위원 그리고 중기협이 정부로부터 1400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70억 원을 매년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체로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관변방송화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글썽요, 그게 항상 이래도 관변, 저래도 관변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도록 아마 방송위원회에서 단단히 단속하고 심의도 하고 규제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숙 위원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장관께서 제가 아주 좋은 정책보고서 자

료집을 냈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이 제목 위에 참으로 인간적인 문화도시,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산업이 아니고 이제 문화 쪽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간판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를 좀 멋지게 바꾸고 싶습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원, 광장, 교통 사인, 군·경의 제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용하기 쉽고 다양성을 포용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접근이 용이하고 이런 것이 될 때 아름다운 도시, 같은 음식이라도 멋진 그릇에 담겨서 식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적, 사회적 소수 계층에 대한 배려라든가 국가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게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 승강장, 덴마크의 안데르센 교통신호등입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번호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외국의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는 무지개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플로리다주의 번호판은 주의 애칭인 선샤인을 번호판에 기입했습니다. 아이오밍주는 말을 타고 조련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홍보하고 광고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잘못된 자동차 찍어서 번호 식별하기 좋은가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도로표지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죠. 외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장관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아주 금방 차이 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여권은 색깔도 그렇고 다양하고 제 생각에는 더 아름답습니다. 공공디자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차입니다. 스위스 우체국 그리고 네덜란드 경찰차인데 이렇게 자동차 겉의 디자인을 바꾼 다음에 시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순찰차의 순찰 횟수가 너무 많아져서 요즘 참 안전해졌어’라고 여론조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디자인이란 시각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이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 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이 우리는 부족한데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추진하고자 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자부, 산업자원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적 시각으로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런 시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만 불도 아직 안 댔는데 언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구겐하임미술관인가요 그 도시는 형편없었는데 그 미술관의 소장품 때문이 아니라 그 미술관 때문에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도시를 이렇게 멋지게 공공디자인을 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안락하게 하면서 2만 불, 3만 불을 앞당길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아주 좋은 정책적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박찬숙 위원 법을 내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장관님, 2003년도 콘텐츠진흥원 통계인데요. 한류 수출해서 외화로 벌어들인 것보다 게임산업이 4배를 이미 더 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청래 위원 서태지가 처음 서태지 음악을 들고 나왔을 때 상당히 생경하고 많은 비난이 있었죠. 그런데 서태지는 결국 20세기 말 한국음악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그래서 결국 문화대통령이라고까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새로운 문화는 처음에 올 때는 항상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저는 바로 그러한 현상이 게임산업 특히 온라인게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저

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 청도에 가서 e-스포츠대회를 하고 왔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20대와 40대가 e-스포츠를 이해하는 게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e-스포츠에 대한 짝막한 동영상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줄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축구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게임대회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프로축구가 있듯이 프로게임단이 있습니다. 지금 13개 대기업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와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프로게임에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국내 조직입니다. 그리고 세계 조직입니다. 나머지는 스폰서도 있고, 후원사도 있고, 그리고 게임단도 있고, 감독도 있고, 선수도 있고, 연봉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체육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하려다 보니까 조건 중에 광역 단위로 11개 지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지금 못 갖추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하나 FIFA같은 세계 연맹이 없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 게임문화는 지금 다가오고 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밸런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젊은 세대들의 대표적인 문화로 이미 자리 잡았고 이런 것을 기성세대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중독만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콘텐츠산업으로 세계 시장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문화콘텐츠시장의 40%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고작 7, 8%로 2등을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화시장을 62% 독점하기 때문에 일본이 문화강국 2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온라인 게임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리고 어찌면 태권도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중주국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주·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한 조건인 11개 지부가 설립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산업적 가치라든가 문화적 가치, 그리고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봤을 때 정부에서 e-스포츠를 정식종목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채택하는 데 문화관광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제가 다 동의합니다마는 이것이 체육활동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것이……

○정청래 위원 장관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아는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게임은 게임산업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것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청래 위원 제가 이번에 정책자료집 2권을 게임 분야로 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이것이 왜 스포츠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정청래 위원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대한체육회장님이 말씀하셨고 대한체육회, 게임산업개발원, 문광부, 그리고 이것을 진흥하려고 하는 국회의원 모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주체가 먼저 정식 체육종목 채택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태스크포스 구성에 저희도 참여해서 저희들 의견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리고 게임산업을 포함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진흥하고 장려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나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전에 여러 군데를 방문해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호 교류나 상호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주도를 해서 콘진이든 개발원이든 영진위든 문화예술위원회든 그리고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든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각 기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이미 우리 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상설로는 할 수 없겠지만 정기적으로 해서 하나의 우리 미래산업, 아까 민병두 위원님도 2020 얘기를 했습니다만 2020년에, 2030년에 우리의 문화산업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에 문광부가 적극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청래 위원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확인 국감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위에 대해 질의하면서 CJ, 튜브 등 창투사가 문제가 있다, 7억 투자 해 놓고 관리보수 비용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도 3년이면 9억 5000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투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해 봤는데요. 문광부가 500억 출자한 투자조합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J창투 5호는 문광부에서 50억을 출자했는데 지금 영업수익 총액이 7억 8900만 원이고, 투자수익은 1억 37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자수익이 6억 5000입니다. 영업비용 총액은 이것보다 더 많은 8억 8000입니다. 손해가 난 장사를 한 것입니다.

문광부에서 출자한 것이 14개 투자조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문광부 것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송위 관계된 것, 100억 투자한 것 2개를 살펴보는데도 서류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해지를 했는데 게임산업 관련해서 수익을 냈더군요. 나머지 부분도 그 실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할 때 과거 독재정권의 언론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 몇 분 해서 먼저 시작을 하면 다른 시민단체들도 같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정청래 위원 자료 수집 연구를 하라는 얘기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2월 2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

회 활동에 적극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리고 언론중재위원 한부환 씨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위대로 문광부는 문광부대로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없더라고요. 문광부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다시 의혹이 있는 인사가 위촉이 될 수도 있는데 해촉하는 과정이 없다면 공정해야 될 언론중재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그분이 그만두겠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객관화시켜서……

○정청래 위원 너무 늦다는 것이지요. 검토해주시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청래 위원 그다음 예술위원회 할 때, 지금 과기정통 분야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우리 고등학생들이 경시대회를 하면 입시에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장청소년문학상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청래 위원 문광부장관 표창을 받아도 입시에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문학상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고등학교 경시대회를 하더라도 입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의 기초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일부 대학에 그런 특례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정청래 위원 특정 대학만 합니다. A대학에서 주최하면 그 대학만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주시고 그 협의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안민석 위원 앞으로 남은 순서가 여섯 분이 더 계시고, 한 60분 내지 70분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최현열 직

무대행께서 제가 알기로 허리가 불편하셔서 매일 치료를 받으러 다닐 정도로 몸이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오늘 보니까 한 위원님도 질의도 안 하셔서 괜찮으시다면 사무총장이 와 계시니까, 연세도 일흔이 넘으신 분이신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미경 안민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그럼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위원 장관님, 지난 본감사 때에는 제가 주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요, 오늘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 태릉선수촌 이전을 골프장 건립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천영세 위원 지난 10월에 KDI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에 따라서 선수촌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대한체육회 업무보고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천영세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의뢰한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1단계에서는 이전을 할 경우에 골프장 부지 면적 30만 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24만 평만 부지 확보하고 이전사업 해라, 나머지 2단계 가서는 여러 가지 태릉선수촌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필요 여부에 따라서 해라 그렇게 했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천영세 위원 그런데 올 6월 20일자로 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서 대한체육회에 보낸 공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에 2012년 프로그램에 골프의 올림픽종목 채택이 확실시되고 있으므로 대표선수 훈련장, 골프경기장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바로 6월 23일 문광부장관께 보낸 공문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안에 2단계 사업에 미확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국가대표선수 훈련

용 골프장 건립을 1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알고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것을 문광부에서 받아 가지고 6월 28일 바로 기획예산처장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원래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한체육회 또 골프경기단체의 강력한 협조요청이 있으니 2단계 사업이 아니고 1단계 사업에 꼭 포함시켜 달라’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천영세 위원 그런데 KDI 예비타당성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적절치 않다, 30만 평 제외하고 24만 평만 확보하도록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최초의 조사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체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한 말씀만 하세요. 무슨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12월에 기획예산처에서 문광부에 보낸 공문 그것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첨부자료 2개 붙인 것.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아닙니다. 2003년에 대한체육회에서 선수촌 장기 이전……

○천영세 위원 2003년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답변을 하세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이것이 기획예산처에서 문광부장관, 예산담당관 앞으로 보냈어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낸다’ 이랬습니다. 2개를 보냈어요. 하나는 ‘3552억 원, 골프장 건립 포함한 총사업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자꾸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문광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위원실에서 기획예산처에 이 공문을 작성한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첨부1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첨부2의 ‘KDI에서 200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대한체육회 선수촌 이전사업’ 여기에 나온 결론이 다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

다.

결론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시려고 그러니까?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반드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 존중해야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천영세 위원 설혹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의뢰해서 나온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선수촌이 옮겨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을 먼저 시작하고 골프장 문제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지난번 본감사 때 옆에 앉아 계신 김재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님하고 김정길 회장님이 그런 식의 답변을 하길래 제가 이런 반문을 했어요. 조그마한 개인 가정집을 짓더라도 거실을 몇 평으로 하고, 안방을 어떻게 하고, 골방을 어떻게 하고, 아이들 방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설계를 해서 한다, 그런데 도대체 60만 평, 3552억이 드는 사업의 3분의 1, 절반 면적에 해당되는 골프장을 건립하는 데 마스터플랜이 없이…… 지금 답변은 이런 것이거든요. 땅값이 오르면 미리 1단계부터 골프장 건립까지 포함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에 가서 골프장 건립 여부는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이미 그 부분도 넘어서서 1단계를 끝냈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금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영세 위원 마스터플랜도 없이 지금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골프장 건립까지 포함해서 올라오고 있고 올해 29억 예산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10월이니깐 금년 중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과거 정부 때 정부기관이 사업 수행하는 관습, 뭐냐 하면 우선 저질러 놓고, 한 발 담가 놓고 그러면 벌여 놓았는데 어찌겠느냐 이런 것은 아닌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아닙니다.

○천영세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는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KDI가 어떤 기관입니까? 사설연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나 문광부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이,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 반드시 골프가 주요 경기종목으로 채택될 공산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임시회 끝나고 7월 8일 IOC총회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에도 골프가 올림픽경기의 주요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골프 국가대표선수 12명과 상비군 60명 포함해서 72명에 대한 훈련장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떠돌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30만 평에 1131억 원 투자해서 지어야 한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도 갖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근거를 댔느냐 하면 지금 아마추어 골퍼들이 6000여 명이다, 프로골퍼 4000여 명이다, 이분들이 지금 연습장도 없고 또 해외로 나가고…… 그래서 지난해 230개의 골프장 또 증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장소도 아니고 선수촌에 이런 골프장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이름 붙여서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는 선수촌은 국가대표 훈련장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나 프로 골퍼들이 왜 여기에, 왜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건립을 해야 합니까?

장관이 마스터플랜을 올해 중에 내겠다고 하시지만 한 발 담그고 가시면서 사업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저는 한 발 담근 것이 아니고……

○천영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발이 아니라 몇 발 담갔어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좌우간 위원님 유념해서……

○천영세 위원 그리고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안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월 임시회부터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6월에 이런 공문 몇 장, 골프협회로부터 대한체육회로, 대한체육회에서 문광부로,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오고 가더니만 지금 예산까지 올려놓고 가고 있단 말이지요.

제 개인이, 민주노동당이 그냥 노 골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230개

증설에 대한 입장하고 선수촌의 골프장하고는 안 맞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본감사 때 정중복 위원님하고 몇 분이 사 진을 들고 왔습니다. 태릉선수촌의 비가 새서 수 리하고 보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있으면 우 선 그런 데부터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혈세인 1000억이 넘는 돈을, 이미 충북에 제2선 수촌이 들어가는 거기에 5개 골프장을 건설 중에 있고 12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개가 있습 니다. 바로 그 주변이에요. 1시간대입니다. 거기 가 서 연습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서 원점에 서 열린 마음으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 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검토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금년 말까지 마스터플 랜을 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짚막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 습니다.

어떤 회의가 있는데 구성원이 9명이거든요. 7 명이 참석하고 2명은 전화로 연결해서 참석한 것 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A, B, C 3개 안건을 하 는 데 절묘하게 4 대 4 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과된 것입니까, A, B, C 중에 어느 한 개가 선택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된 것입니 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가 얼른 답변드리기가, 무슨 질의를 하시는가 취 지는 알겠는데, 아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8월 18 일 27차 회의를 가지고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 같 은데요.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시는 것처럼 9명 중 에 6명이 참석해서 일간지 18개사 선정한 것, 5 개사 선정한 것, 3 대 3 가부동수로……

○심재철 위원 아니, 그것은 26차 회의이고 27 차 회의에서 9명 중에서 7명이 참석하고 2명은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서 참석을 전부 확인해서 참 석한 것으로 쳤어요. 거기서 A, B, C를 가지고 표결하 는 데 4 대 4 대 1이 나왔습니다. 9명의 과반수면 5명입니다. 그러면 4 대 4 대 1이면 아

무것도 선택이 안 된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요.

○심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4 대 4 대 1 가 부동수니까 위원장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선택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회의록 사본하고 신 청서 심사결과를 보자고 하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6차 회의고 그것이 종결이 되지 않아서 27차 회 의로 넘어와서 결론이 난 것이지요. 26차에서 4 대 4 대 1이 되어서 결론이 안 난 것이지요. 방 금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이 어디 편을 들어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27차 회의로 넘어온 것 이지요.

○심재철 위원 결론이 안 난 것이 아니라 안건 으로 붙여져서 그것이 가결이 안 됐으면 그것이 부결인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부결되었으면 다시 다 음 회의에 붙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재의가 아니라니까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리 미디어국장이 설 명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록 사본을 봅시 다, 신청서를 봅시다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보여 주겠다고 하다가 어젯밤에야 한 보따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런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주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의결을 했던 것은 원천적으 로 무효입니다. 이 부분 원천무효시키고, 당시 표 결에 참여했던 지발위원들 사퇴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실 에서 한번 감사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차 회의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 선 정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그날 회의 가 아니고 8월 18일 개최되었던 27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을 달라니까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어제 위원 님실에 보좌관을 통해서 열람을 하신 것으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회의록에 이런 것들은 결정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최초에는 A안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론이

제기되니까 B안으로 다시 한번, 그래서 A안 B안 2개를 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C안을 내 가지고 3개를 가지고 표결하게 됩니다. 4 대 4 대 1 해 가지고 이게 채택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원점으로 되돌아갔던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강행을 해서 A안으로 통과를 시킨 것인데,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장관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중요안건입니다. 첫째가 중요안건이고, 둘째 설령 중요안건이 아닌 일반안건이라 하더라도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간이 없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의계약 관계를 여러 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수의계약할 때 3000만 원 넘는 것 제대로 법 지키시도록 노력하시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정산할 때 가짜 영수증, 간이영수증 막 붙여 가지고 했던 것 보여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정산을 반드시 하고 사업비 정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문화중심도시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비를 2조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사업을 최초에는 5000억짜리로 계산했는데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분석을 해 보니까 7000억으로 늘어납니다. 40% 이상 증액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12개의 연구용역이 지금 다 완료가 돼 있어야 하는데 3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7개가 완료가 안 돼 있는 채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 내용이 수차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용역 3000만 원 수의계약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감사원은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고 문화관광부는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라고 하니까 저한테 답변을 보내왔는데 완전히 억지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붙였는데 시간이 없으니깐 이 부분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 5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용역 준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정부입법을 하지 않고 의원입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려면 각 소관부처가 치밀하게 따지게 됩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입법으로, 의원의 입법 성과도 하나 올려 줄 겸 생색도 낼 겸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앞뒤 전후 사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의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여지고 있는데요. 2003년도의 기초연구용역, 가장 밑바탕이 되는 연구용역이 나왔었는데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엉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언론재단이사장 나와 계십니까?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예.

○심재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유자금 5억, 기업은행 30억, 국민은행 20억 이렇게 단기 3개월 짜리로 넣고 있는데 장기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저희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문광부에서……

○심재철 위원 당시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앞뒤 날짜를 따져 보니까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여유자금 40억짜리가 남아 있는데 단기보다는 장기로 집어넣는 것이 낫겠지요? 이번 10월 21일 만기가 됩니다. 바꾸시겠지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예,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자 손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다음은 영진위에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E-6 비자 얘기를 하니까 당초 취지대로……

○위원장 이미경 잠깐만요.

영진위에서 누가 나와 계시나요?

사무국장 나와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김혜준 그런데 이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항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까?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김혜준 예.

○심재철 위원 지난번에 심사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E-6 비자가 당초 취지대로 노래공연에 종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온라인게임물이 불법 유통되는 상황들도 그때 말씀드렸지요? 몇 가지 샘플들. 그래서 이 부분도 음비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마땅히 고발조치하고 전체적으로 리스트 업을 하시겠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 부분은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심재철 위원 어느 업체가 현재 지키지 않고 있는지 리스트 업 해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것만 마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용언 국장께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문광부의 산하단체이며 따라서 문광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언론중재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독립기관이지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예, 독립적 기관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산하단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저희의 직접적인 산하단체는 아닙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

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예,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자료제출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야 몽땅 무더기로 들고 왔던 것, 게임산업개발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하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문광부에 용역 신청을 할 때는 인건비를 신청합니다. 돈을 타 내고는 자기 안의 직원이 한다고 해서 직원한테 인건비를 안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예비비로 돌려 버립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장관님?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신청을 할 때 다시 한번 엄밀하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잠깐, 정책연구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정책연구원장은 지난번에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정책연구원장이 답변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이영욱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정출연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대학교수가 어디에다 용역을 신청해서 받으면 그것은 인건비가 되고 자기가 가지게 되지만 연구기관 전체를…… 지금 국가에서 운용하는 지침 자체가 그것으로 자기 수익을 가지게 합니다. 그 인건비를 가지고 자체 연구원의 수익을 가지게 하고 그만큼을 국고나 혹은 기금에서 안 주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기관이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만큼 안 줬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이영욱 예?

○심재철 위원 용역을 그만큼 댔으니까 땀 만큼 다른 데서 깎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이영욱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심재철 위원 그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그 액수만큼 들어갈 것을 깎는다, 믿어 달라, 어떻게 믿어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이영욱 그렇지 않고요, 매년 예산에 그것을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이렇게 축적되게 되면 ‘아, 이 연구원들은 대개 어느 정도를 수탁사업에서 나온 것으로 예산을 충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30%를 하계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가 없는데, 방금 장관께서 얘기하신 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연구원 내부 직원이라 하더라도 연구원한테 일을 시켰으면 적게나마 보상을 해야지요. 그런데 전혀 보상을 안 하고 예비비로 돌려버린다는 것이지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이영욱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심재철 위원 월급은 직원이나까 받는 것이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이영욱 그렇지요.

○심재철 위원 직원으로서 또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참여한 것만큼의, 다소나마의 실비 보상은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이영욱 그 사항은……

○심재철 위원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엄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엄밀하게 살펴보세요 가지고, 처음에 상식적으로 답변하신 것이 맞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넘어가면서 탈락한 업체는 3년 동안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업체가 그대로 가서 인증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혜를 준 것이고 비호한 것이라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시간도 오래되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한강에 대해서 여쭙 볼게요. 얼마 전 국정감사 때 이재오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죽어 가는 한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한강을 위한 제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장관께서는 한강 개발의 주체는 1차적으로 서울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안목이 부족한 지자체에 과연 이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재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자체의 문화정책은 국가 문화정책의 큰 틀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껏 우리가 한강을 접근했던 방식은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대에는 도로나 다리를 확장하는 것이 한강 개발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스포츠 시설이나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붐이었고요. 현재 한강을 관리하는 주체는 서울시 산하의 한강시민공원사업소라는 행정관청입니다. 말하자면 전문 문화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예산 내역을 보면 한강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올해 집행할 예산은 730억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시설유지·관리나 레포츠시설에 들어가고 문화 지출에 들어가는 것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강거북선 운영에 3300만 원 들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외국 사례와 좀 비교를…… 이번 국감 때도 저는 지적했지만 우리 한강의 경쟁력은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서양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고유문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센강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파리 센강의 경우를 보면 오래된 다리를 비롯해서 미술관 성당 광장 궁전 등 강 주변에 있는 역사유적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강 주변에 우리의 문화제가 없다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행주산성에서 아차산성에 이르기까지 총 37개의 유적지가 있으며 유적지마다 볼 만한 유물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강변에 있는 우리의 문화재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이 과거에 어떤 유적지였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고 그냥 여가나 즐길 수 있게 개조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직접 그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차산성인데요, 그냥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강나루에는 기도원이 들어서 있고 뚝섬 나루에는 전혀 관계없는 테니스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문화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 한강의 유적지를 보존·관리하는 것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유적지를 하나로 잇는 한강문화권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페라하우스가 아니라 한강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유적지가 복원되면 당연히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한강이 한반도의 허리 부분에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남북한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강에 통일문화촌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해안 물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하천문화특구로 발돋움하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문광부에서는 이 한강이 역사와 우리 문화가 숨 쉬는 그런 한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앙케트 조사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고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 가운데 평생 동안 공연이나 전시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은 26%가 된다고 하는 조사가 있고요. 평소에 문화생활을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3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점이 이 조사결과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일정을 보면 최근에

건립된 덕양어울림누리 또 의정부 예술의전당 건립 일정과 비교해 보면 서울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얼마나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덕양어울림누리의 경우, 이 경우는 큰 공연장을 지을 때의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습니다마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사부터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오페라하우스 건립, 이것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고 전형적인 성과주의에 집착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민 가운데 70%에 달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건립되어 있는 문화원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56%의 사람들은 각 지구마다 건립되어 있는 문화회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은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보면 사설문화센터는 21%인데 반해 문예회관 7%, 문화원 4%로 나타나서 사설문화센터에 비해 공공시설의 경쟁력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지역 간 차별성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결국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 가까이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또 공연시간대도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관람에 있어서도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66%가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7%로 나타나서 소득계층 간에 공연관람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예술관련 지출비용을 지원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사업은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성화해 주시고 그래서 문화정책에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문화정책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서울시 문제는 서울시와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안해 주신 내용은 그 자체로서는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제안이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서울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가 주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협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식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진주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1차 감사에서 관광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특히 관광호텔의 부가세 영세율이 올해 폐지되면서 외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데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책을 물었습니다.

문화부에서 답변이 왔는데 '6월 말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5% 감소했다. 영세율 폐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관광객 580만 명을 기준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때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광호텔업을 수출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부가세 영세율 상시 제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관계부처가 어디입니까? 재정부인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선 재정부입니다.

○최구식 위원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한 인식은 상당 수준 모아졌습니다.

○최구식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최구식 위원 수출산업은 부가세뿐만 아니고 전력요금도 일반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됩니다. 그

런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구식 위원 수출산업으로 지정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 호텔에……

○최구식 위원 그렇지요. 수출산업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하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같이 논의합니다.

○최구식 위원 주로 어디에서 반대를 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첫째, 재정부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것이고……

○최구식 위원 세수 증대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영세율을 폐지하면 세수가 얼마나 증대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추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찬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구식 위원 엄청난 액수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찬 저희가 조사한 영세율을 적용했을 때 업계에서는 관광객 외화소득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용했을 때는……

○최구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세율 문제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비대한 정부가 씹씹이를 잔뜩 키워놓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쥐어뜯다는……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폭탄, 마른 수건 쥐어짜기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번 영세율 폐지도 이런 쥐어짜기 일환으로 나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금과 관련된 공무원에게 아이디어 뭐 없느냐고 하도 쪼니까 아이디어랍시고, 묘안이랍시고 낸 게 뒤적여서 그거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않고요. 그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여러 차례 정부의 선처에 의해서 연기돼 왔던 것이 이번에 다시 또……

○최구식 위원 별 문제없이 잘 돼 왔는데, 이거 관광객이 줄어든 것이 거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한 것을 보니까 세금 좀더 거두려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하소연을……

...

○**최구식 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여러 차례 재정부에서 1년, 1년 연장해 주었는데요. 또 재 정부는 재 정부 대로 입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와 협의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최구식 위원** 관광은 지금 IT, BT와 함께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이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관광업은 한번 사람이 물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소문 따라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반대로 가면 또 반대로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체류국보다는 경유국 성격이 강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가는 길에 한번 들러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값이 비싸지면 바로 안 갑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호텔방 값은 동경에 이어서 아시아 두 번째입니다. 거기다 10% 세금을 더 올리면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한 번 안 오면 점점……

지금 다른 나라는 계속 키워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줄어들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수지 적자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관광수지 적자액이 얼마인지 혹시 수치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

○**최구식 위원** 35억 달러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35억 달러입니다.

○**최구식 위원** 작년 전체 적자액이 38억 달러였는데 거의 육박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금년에 한 60억 달러에 이르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왜 이렇게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뭐랄까, 관광업계에서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라고 합니다.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있고요.

○**최구식 위원** 올 8월 통계가 나간 사람이 107만 명인데 들어온 사람은 53만 명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선 관광의 인프라 또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고급 소비에 대한 이 사회의 질서 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해외관광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구식 위원** 다 뻔히 아는 얘기입니다.

정보도 제대로 없고 관광지 개발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값은 비쌉니다. 여기다 우리나라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그런 나라라는 아주 이상한 오래된 관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작고 볼 게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유등축제도 대단하고 볼 게 많은 곳입니다.

○**최구식 위원** 라이샤워, 페어뱅크 같은 일급 동양사학자들이 1960년에 하버드대학 교과서로 쓰기 위해서 동아시아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한국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국은 중국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보통 크기 나라이며 인구는 보통 나라보다 더 많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일개 주인 미네소타보다 조금 더 클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왜소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것보다 작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다. 5000만에 가까운 한국의 인구는 전통적인 서유럽 강대국 인구에 비해 적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는 이 아름다운 자연, 깊고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를 제대로 가꾸지 못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게 관광공사로 알고 있는데 책임이 실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도시, 멋진 축제가 아주 많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많이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관광공사 사장께 묻습니다.

화상회의 지금 열리고 있는 것 아시죠?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최구식 위원** 몇 명 정도 와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지금 중국에서 30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제가 호텔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VIP보다 10배 이상 돈을 쓴답니다. 그리고 쓸 데가 있으면 돈 쓰는 액수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답니다. 신문에 보니까 720조 자산가들이 모였다고 했더구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돈 쓸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 허가를 해 줬다가 사소한 서류상 하자를 문제 삼아서 계약을 해지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결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제가 보면서 참 관광공사 결

정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으로부터도 경범죄에다가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에 무슨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이미 그 정도는 훨씬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일부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지독한 보신주의, 국민이 야 죽건 말건 국가야 손해 보건 말건 내 몸에 먼지 한 톨 묻히지 않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지노는 화상회의에 맞춰서 문을 열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늦어지면서 저는 참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답변을 보니까 최대한 투명성, 공정성을 기한다는 기조 아래 계약해지를 했다, 그리고 신규 오픈 지연으로 인해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준비 잘하고 있다, 손실 추정액은 모르겠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을 봤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번에 화상회의에 맞춰 가지고 문을 열었다고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위원님, 당초 이것은 12월 개장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제가 결정하면서 처음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안이 문제가 될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 현실이 배고픈 것보다는 아픈 것을 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을 지키기 위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최구식 위원 당사자 쪽으로부터 제가 확인한 것이 화상회의에 맞춰 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당사자는 접니다.

저희 계획에 이것은 12월 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판 자체가 깨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구식 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글 쓰는 사람이라서 국어기본법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국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혹시 장관님, 이것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잘 알기도 하고 모르는 것도 있고요.

○최구식 위원 정부에서 앞장서 가지고 우리 한글이 말하자면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어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데는 ‘로드맵’ 같은 낯선 외국어를 유독 애용하고 공공부문에서도 희한한 국적 불명의 조어를 사용하는 이 정권 분들의 성향 탓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 정권에서 이 법도 제정한 만큼 현재 법은 너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질의는 서면으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평가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고 또 우리 국립국어원으로 하여금 정부 부처의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런 것에 대한 사례를 전부 지금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장금’이 방영된 이후에 홍콩 방송에서 진행되던 일본어강좌가 막을 내리고 대신 한국어강좌가 개설된 사실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겨울연가’가 방영되고 나서 NHK에서 한국어강좌를 했는데 한 달에 20만 부씩 교재가 팔려나갔습니다. 말하자면 20만 명의 일본인이 우리말을 배우고 싶어한 거죠. 우리말을 배워서 배용준과 최지우의 대화를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말하자면 한류의 활성화가 곧 우리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강좌들이 개설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말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교재들이 잘 팔리고 있는데 제가 일본에 있는 대형 서점에서 무작위로 한국어교재를 죽 구했습니다. 30권 구했는데요. 30권이 다는 아니고 더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있는데 그 30권을 일단 구해서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메이킹 아웃 인 코리아’이라고 되어 있는 일본 책은 전부 욕 투성이입니다. 우리말을 배우려면 욕을 좀 배워야 되는 모양입니다. 전부 욕이예요. 이것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로 되어 있고요.

‘한국어회화집’이라고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섹스 가이드입니다. 성적 대화, 이것은 말하자면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랑 자려면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각 단계별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얼굴이 뜨거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엽기적인 그녀’가 영화로 상당히 히트 친 다음에 만들어진 소위 엽기적인 그녀의 대사들을 가지고 한국말을 배워라, 이런 건데 맞춤법도 다 틀리고 전부 욕이예요. 상대방에 대한 욕과 반말입니다.

그러니 외국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면 만나자마나 처음부터 욕할 거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 얘기할 거고,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물론 출판사는 다 일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말의 해외 보급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사실 8개가 넘습니다. 학술진흥재단, 국제교류재단 등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우리나라 교보문고에서 일본어나 영어 가르치는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욕과 성적 대화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없거든요.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출판사들에게, 저는 우리말을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된 교재의 원형을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립국어원에 있는 예산과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일단은 실태 파악을 먼저 하고 그래서…… NHK의 교재도 이 NHK 교재 만드는데 기여하신 분이 이번에 한글날 우리 국가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든 책에도 40군데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제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셔서 제가 이것을 이슈화했더니 자기가 만든 교재에 오류가 있다면 감수해 달라, 자기가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을 알면 고치겠다는 의사가 다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섹스 가이드나 욕으로 가득한 저질 출판

물이야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말의 해외 보급에 정말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한글날 행사를 마치고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우리 한국어를 외국에 보급하고 있는 일본교수 또 중국교수, 불가리아 소피아대학에서 하는 모든 분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지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국어원과 한국어세계화보급재단의 주관으로 내년 초까지 한국어교재의 모델이랄까 교사용 지침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급시킬 생각입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전에도 이 문제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교재도 교재지만 우리말을 결국은 교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교재가 있으면 선생님을 모실 텐데 대부분 유학생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학생들조차도 우리말의 기본적인 어법이나 맞춤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유능한 강사의 양성에 관한 문제도 한번 검토하셔서……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유럽 각국의 우수한 대학들이 한국어강좌를 신설하는 게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우리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요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립국어원과 한국어세계화보급재단 주관으로 해서 그 대책까지 세우겠습니다. 또 교육부와 이런 문제도 계속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류의 완성은 한국어다, 이 명제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한국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가진 사람이 우리말을 배워서 훨씬 더 친근하게 되고 우리말을 배운 사람은 반드시 와 보고 싶어하게 되어 있고 그 말을 써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배우면 덕수궁에 온 외국인한테 쫓아가서 말 걸듯이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한류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문광부 산하에 있는 여러 기구들 특히 위원회 구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회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산하기관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영등위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영등위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건 영등위 자체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등위가 생겨진 그 자체의 역사적 구조와 현재 잘못 설계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 때문이고 따라서 저는 영등위는 이제는 해체하고 영등위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각 기관별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고 또 게임 관련된 것은 게임 관련된 전문기관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영등위 자체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등급 지정하는 기관은 법의 개정사항으로 다변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실 거고요. 영등위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곧 다가왔는데요. 제가 주관해서 오늘부터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출품하게 될 우리 문학의 번역된 책들을 진열했고 장관님께서도 와주셔서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우리나라는 왜 노벨문학상을 못 타요?’ 그럴 때 결국 할 수 있는 대답은 ‘우리 문학이 번역이 안 됐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문학이 우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해외에 알려지지 않아서 문학상을 못 타는 거라면 이것은 참으로 직무유기다 그런 측면에서 문학번역원을 법정기구화했는데 이쪽에 예산을 좀 많이 뒷받침해서서 이쪽에서 보다 더 많은 우리의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잘 알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다음 어차피 영등위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지금 문학번역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출판산업의 활성화에 관해서 문광부가 오래전부터 많은 신경도 쓰고 여기에 상당한 자금도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판의 문제는 지금 굉장히 사양산업화되어서 불황에서 계속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출판과 관련된 여러 기구들, 예를 들면 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유통과 관련된 기구, 출판금고 등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기구들을 이제는 통·폐합해서 출판진흥위원회로 변모할 때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민간에서도 영화진흥위원회나 문화예술위원회처럼 출판 관련 된 부분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내려고 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좋은 지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관심을 두고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 특히 기초예술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국책연구원들이 사실은 대부분 문화관광 관련된 연구를 하는 전담 국책연구원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다른 연구원의 거의 4배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것을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문화관광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연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고급인력들을 저렇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 기구를 격상해서, 법정기구화해서 문화관광부의 국책연구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문제들을 검토하고 자료 혹은 여러 가지 논문, 보고서 같은 것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상을 변화시킬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얼마 전에 문화관광 정책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의 일관성은 뭐냐 하면 개발독재시대 혹은 산업화·근대화 시대에 설계되어 만들어진 기구들은 과감하게 이제는 위상을 바꾸고 미래형으로 필요한 기구들이나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 장관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본감사 때 백두산관광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 백두산 관광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있느냐 이러니까 계획이 없다고 했고, 기획예산처에 예산 신청을 했느냐 했더니 그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예.

○정종복 위원 그 뒤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관광공사에서는 남북 관광교류 활성화 명목으로 내년도에 14억 원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던데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것이……

○정종복 위원 들어보세요.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문화관광부 직접사업으로 기금에서 14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종복 위원 예산 요구 내역도 보면 금강산, 개성 및 백두산 등 북측 관광지역과 남측 인접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현지 조사 및 업무협의를 한다고 해서 전체 1억 9500만 원을 요구하고 그중에 남북 연계상품 홍보비로 1억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백두산 관광을 위해서 투자할 의사가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왜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포괄적으로 대북관광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비, 회의비 이런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투자나 그런 것을 명시했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종복 위원 아니, 제가 투자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지금 현재는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정종복 위원 투자할 계획도 없이 49억 원 썼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피치 지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북의 요청이 있고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한 것입니다.

○정종복 위원 답변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이해하기로는 대규모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정종복 위원 적은 투자는 투자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런데 내년도에 특별히 백두산 관광에 투자할 부분은 없습니다.

○정종복 위원 됐습니다.

합의서를 보내달라 했더니 합의서는 왔습니다. 검토의견서는 왜 안 보내줍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어떤 내용의……

○정종복 위원 합의서를 받고 백두산 시범관광에 대한 검토를 했지 않았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특별한……

○정종복 위원 검토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합의서에 따라서 내용은 논의를 했지만 특별히 검토서를 만든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합의서를 보니까 올해 안에 두 차례 이상 백두산 관광을 실시한다, 세부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북측에서 온 회신에 ‘백두산 시범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10월 20일경에 관광공사 일행이 평양을 방문하는 기회에 긍정적으로 협의하게 되리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측에서는 완전히 이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편지를 보냈고요. 또 어제 갑자기 위원회에서 행정실 직원들이 ‘평양 안 가실랍니까’ 하면서 국정감사 중에 ‘평양방문단 참가요청’ 이것을 돌리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백두산 시범관광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이상해서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지금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회기 중이라 시간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정종복 위원 이런 것 보면 이미 다 백두산 시범관광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백두산 시범관광은 당초에 저희가 7월에 합의할 때 금년 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진척이 안 된 것입니다.

○정종복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여기 어제 돌린 평양방문단 참가요청 서류를 보면 3박 4일간 1인당 160만 원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들러서 3박 4일 가는데도 70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왜 이렇게 비싸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것은 아직 최종 합의된 금액은 아닙니다. 전세기를 저희가 차터(charter)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기 비용이……

○정종복 위원 배 이상 비싼데 여기에서 얼마를 북한에 떼어줍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북한에 당연히 입북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지난번에 관광에서 누적적자가 많이 났다고 했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하고, 물론 우리 우상호 위원께서도 수익관계만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국민들에 대한 부담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타당성조사는 하고 적절한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 이상이나 부르는데 누가 가겠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런데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경우는 다르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 49억 원을 준 것은 무엇 때문에 줬다고 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백두산 관광 주변지역의 포장재 지원용입니다.

○정종복 위원 이것도 결국 백두산 관광을 위해서 사전 정지작업 내지 투자한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인프라나 SOC……

○정종복 위원 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장님 계시지요?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예.

○정종복 위원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감사 때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부처가 언론중재 신청을 너무 남발한다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물어 봤더니 이번에 답변 오기를 ‘여러 가지로 현재 제도 및 위원회 기능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의 조정신청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신청인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분쟁조정기구인 위원회가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구요. 제가 권력의 무분별한 대언론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 전략적 봉쇄소송이 필요하다고 이랬더니 ‘이것은 사법정책적 사항이니가 우리 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예.

○정종복 위원 지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보면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직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독립성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성을 주면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답변을 보면 언론중재위원은 정부의 눈치만 이리저리 보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오해이십니다.

○정종복 위원 제가 이야기 마저 하고요.

지난번에 신용언 문화미디어국장이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문화부 산하단체로서 사무처는 그 직무에 대해서 문화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문광부장관이 사무총장 교체해라 하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못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위원님, 오해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완전히 오해입니다.

○정종복 위원 어떤 식으로 오해입니까?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제가 취임 초기인 지난 7월 말에 사무총장을 해임을 했는데요. 그것은 문광부 쪽의 요청이나 압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종복 위원 문광부 쪽에서 교체 요구 안 했습니까?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아니, 그것은 교체 요구가 아니라 제가 취임하기 직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때 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면서 정 장관이 여러 가지 중재위원회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러 저런 사정으로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명백히 그 자리에서 그것은 임명권자인 나의 문제이다, 내가 앞으로……

○정종복 위원 그 뒤에 교체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교체가 되었지요.

○정종복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맞춰보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천만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문광부장관의 압력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사무처 내부의 분위기 문제입니다. 이것을 진작하기 위해서 제가 고심해서 결단을 해 가지고 조치한 것입니다.

○정종복 위원 앞으로 정부의 언론중재 신청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소신있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소신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정부 쪽에서 간섭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진짜 믿어주세요.

○정종복 위원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광부장관님께 질의 안 하면 섭섭할 테니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올해 들어 가짜 상품권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이 늘고 있지요? 가짜 상품권 단속된 사례가 더러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적발된 것이,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정종복 위원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불법 상품권 위조와 유통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광부에는 이런 가짜 상품권 단속에 대한 통계도 없고 자료도 없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며칠 전부터 통계라든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주겠다고 하더니 어제 와서는 관계기관과 협조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자료가 없다고 관계직원들이 얘기를 해요. 경품용 상품권 지정 부서가 문광부인데 이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계속해서 앞으로 불법 상품권을 단속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경품용 상품권을 계속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시장의 혼란과 불법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7월 20일에 오셔서 국책사업인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회를 하셨지요? 저로서는 정말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시민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이것을 내가 이성원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장관님한테 보여드리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하십시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문화관광부에 공간문화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저의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책제안에 경관법 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간판문화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내년도 공간문화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문화정책국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예, 국회에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제안을 했거든요.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화미디어국장님, 잡지업계가 어려운 데 잡지업계 활성화 방안과 올해와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출판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최구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시간 엄수를 제1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15초짜리인데 못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채 장관님을 비롯해서 출석해 계신 모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창달을 위해서 평소 기울이시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웃음)

○위원장 이미경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청래 위원 제가 이번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정부가 투자한 투자조합 운영실태입니다. 방송위에서 한 것 100억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모태펀드도 1조 원 조성하는데 문광부에서도 1000억인가 1200억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4개 투자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정병국 위원님!

○정병국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무용단의 단원하고 행정요원 그리고 예산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공연횟수와 공연장소를 제출해 주시고 예술의전당 입주업체 현황하고 사무실 임대료와 예술의전당에서 지금 말씀드린 4개의 국립 단체들이 공연한 횟수하고 일수, 대관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미경 이재오 위원님께서서는 지금 특별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한 2, 3분 정도 추가 질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선 자료요청 먼저 받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대한체육회의 노동조합 성명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노조활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영역을 추구하고자 힘을 앞세운 비열한 여론몰이로 체육계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먼 안민석 의원과 KOC 분리를 책동하는 무리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은 국회 권능을 무시한, 노조활동을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대해서 협박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입법부의 조정력 그 자체를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이기주의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물론 작은 일을 과잉

해석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국감을 하는 마지막 날 이 성명서를 직접 본 마당에 그냥 넘어가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법정기구이지요? 대한체육회 소속이지요? 문화관광부 산하인 체육회의 소속입니다. 행정부 산하의 기구가 입법부 활동을 위협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첫째는 체육회와 문광부가 진상을 조사하고 국회 문광위에 대해서 또 안민석 위원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회 문광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재홍 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은 이미 우리 감사 시작하기 전에 안민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정동채 장관께 여기에 대해서 우선 문화부가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 또 대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보고 나서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이재웅 위원 국립고궁박물관에 지금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단이 있지요? 거기에 추진단이 들어가게 된 경위하고 지금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경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면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경순 원장님, 게임 현장에 다녀보셨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이재오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이재오 위원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구요.

국회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 가보니까 아시겠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이재오 위원 다음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서병문 원장님, 지난번에 국감할 때 지금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서병문** 8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재오 위원** 1년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습니
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서병문** 6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재오 위원** 그것 가지고는 콘텐츠진흥원이라
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의 미래산업에 대해서 많
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서병문** 예.

○**이재오 위원** 지난번에 장관님 계시지 않을 때
저희들이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특
별히 확인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이나 기구나 인
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알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체육회의 성명서 문제에 대해서
저희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한 것은 지
금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하고 동감입니
다. 마치 여당위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여당위원님
들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기
본적으로 체육회가…… 체육회에서 누가 나왔지
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사무총장입니다.

○**이재오 위원** 체육회가 노조와 대화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체육회 집행부가 노조와 좀더 애
정을 갖고 성실하게 대화를 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와서 두 번째
국감을 끝냈습니다. 재정경제부나 국방부나 이런
데는 뭐가 잘못되면 당장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당장 난리가 나지만 문화관광부에 관계되는 여러
부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
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영화 구경 한 번 안
간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체육경
기 안 본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절박성은 훨
씬 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을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예
술, 체육, 관광, 문화, 언론, 대한민국 전체의 얼
을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
히 한 정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한국의 미래에 대해
서 창의력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한나라당에 위원장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확인감사를 받으신 문화관광부장관을 비
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속·산하기관
장과 임직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오늘까지 수고 많
으셨습니다.

비록 2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국정감
사였지만 돌이켜보건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때보다도 국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문광위원회는 31개나 되는 피감기관
에 대한 짹짹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99%의
높은 국감 참석률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 여러 위
원님께서 총 69건의 심도 있는 정책자료집 발간
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제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야말로 그동안 비판받아 왔던 정
쟁 위주의 국정감사, 쓸모없는 국정감사, 이런 식
의 비판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정책감사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정감사 첫날 한브랜드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류
를 확산시키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김재윤 위원님, 국감 기간 대부분을
한복을 입고 참석을 해 주신 것 돋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국감 기간 중에는 고 손기정 선생
금메달 등의 국가 반환 및 국가문화재 지정 촉구
결의안, 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
함으로써 손기정 선생의 금메달과 우리 한글이
가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계
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반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없지 않았지만 그간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제기되어 온 재정 불투명 등 제반 문제점
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과 노력으로 인해서 축구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
있던 대한축구협회의 법인화를 이끌어낸 것 또한

이번 국감의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라고 했지만 특히 안민석 위원님, 이광철 위원님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국감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와 진주유등축제 현장방문을 통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 영상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함과 아울러서 진주의 유등축제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업무를 개선·발전시키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 도중에 이재오 위원, 안민석 위원, 정병국 위원, 윤원호 위원, 김재윤 위원, 이계진 위원, 손봉숙 위원, 박형준 위원, 이광철 위원, 이재웅 위원, 강혜숙 위원, 박찬숙 위원, 정청래 위원, 천영세 위원, 심재철 위원, 최구식 위원, 정종복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소속기관 등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질의하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답변 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박수나 다 같이 하고 끝내지요?

○위원장 이미경 박수를 한번 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모두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모두의 노고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부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24인)

강혜숙	김재윤	김재홍	김충환
노웅래	민병두	박찬숙	박형준
손봉숙	심재철	안민석	우상호
윤원호	이경숙	이계진	이광철
이미경	이재오	이재웅	정병국
정종복	정청래	천영세	최구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관광부

장관
차관
차관보
정책홍보관리실장
종무실장
문화정책국장
예술국장
문화산업국장
문화미디어국장
관광국장
체육국장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장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장
추진본부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예술의전당사장
영상물등급위원장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언론중재위원장
한국언론재단이사장
한국관광공사사장
대한체육회
회장
사무총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회장
직무대행
한국영상자료원장
사무국장
영화진흥위원회장
사무국장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최	문민	회수
정배임	동종병	채신수
유이	진보성	룡경원
이위	성옥	환우
박신	양용	언찬
김조	용현	남재
이	영	진
이	건	무호
김	철	수
김	영	욱
김	병	익
김	용	배
이	경	순
서	병	문
우	중	식
김		근
유		균
조	준	회
정	남	기
김	중	민
김	정	길
김	재	철
박	재	호
최	현	열
이	경	석
김	혜	준
이	영	욱
김	병	익

예 술 의 전 당 사 장	김	용	배
영 상 물 등 급 위 원 장	이	경	순
한 국 문 화 콘 텐 츠 장	서	병	문
진 흥 위 원 장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우	종	식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김		근
한 국 방 송 영 상 산 업	유		균
진 흥 위 원 장			
언 론 중 재 위 원 장	조	준	희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	남	기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김	종	민
대한체육회			
회 장	김	정	길
사 무 총 장	김	재	철
서 울 올 림 픽 기 념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박	재	호
이 사 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 장 직 무 대 행	최	현	열
한 국 영 상 자 료 위 원	이	경	석
사 무 국 장			
영 화 진 흥 위 원 회	김	혜	준
사 무 국 장			

○출석 증인

최명윤(명지대 교수)